

III

설문조사 결과

1. 금융지식

가. 일반 금융이해력

먼저 금융이해력을 측정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Big 3, 즉 이자율 및 복리, 물가상승률, 위험분산 관련 질문 외에 담보대출, 채권가격, 대출 관련 질문을 더하여 여섯 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였다.

일반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

A1. 귀하는 저축예금 계좌에 100만 원을 예치해 두고 있고, 이자율이 연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이 돈을 5년 동안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예금을 하지 않는다면, 5년 후 저축예금 계좌의 잔액은 얼마일까요?

- ① 110만 원보다 많을 것임
- ② 110만 원
- ③ 110만 원보다 적을 것임
- ④ 잘 모르겠음

• 정답: ① 110만 원보다 많을 것임(복리 효과로 인해 매년 이자가 붙어 5년 후에는 1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 됨)

A2. 당신의 저축예금 계좌의 이자율은 연 1%이고, 물가상승률은 연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 후 이 계좌에 있는 돈의 구매력은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① 증가 ② 같음 ③ 감소 ④ 잘 모르겠음

• 정답: ③ 감소(이자율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 실질 구매력(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은 감소함)

A3.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한 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 회사의 주식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 정답: X(여러 회사의 주식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낮고 수익의 변동성이 줄어듦)

A4.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1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30년 만기 대출보다 월 상환액이 더 많지만, 대출 기간 전체에 걸쳐 내는 총이자 는 더 적다.”

- 정답: ○(15년 만기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보다 상환기간이 짧아 월 상환액은 더 많지만, 총이자 는 더 적음)

A5.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 ① 오를 것임 ② 떨어질 것임 ③ 동일할 것임
④ 채권가격과 이자율 간에는 연관성이 없음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떨어질 것임(채권가격은 주로 시장 이자율, 발행 시 정해진 이자, 만기까지 남은 기간, 신용 위험 등에 의해 결정됨. 특히 시장 이자율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자율 상승 시 채권가 격은 하락하고, 이자율 하락 시 가격은 상승함)

A6. 귀하께서는 1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연 이자율이 연 복리 기준으로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 이자율에서 귀하가 갚아야 할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데 몇 년이 걸릴까요?

-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 4년 미만 ③ 4년 이상 6년 미만
④ 6년 이상 ⑤ 잘 모르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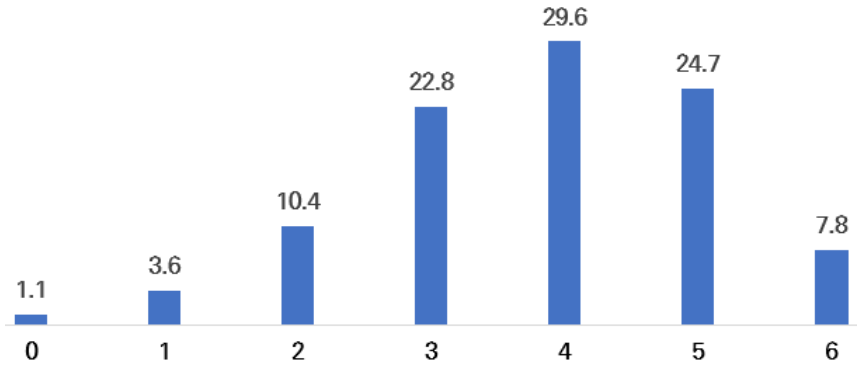
- 정답: ② 2년 이상, 4년 미만(72의 법칙에 따라, 20% 이자율에서는 대략 3.6년($72 \div 20$) 후에 원금 이 두 배가 됨. 72법칙은 투자나 대출의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 법으로서 $72 \div \text{연 이자율}(\%)$ 로 계산함)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 문항 중 3.8개 문항을 맞추었는데, <그림 III-1>은 정답 수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답률이 86.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담보대출(77.5%), 위험분산(73.7%) 순으로 높았다. 복리에 대한 질문의 정답률은 58%, 이 자율과 채권가격 간의 관계 문항 정답률은 53%, 대출 복리 관련 정답률은 32.4%였다.

〈그림 III-1〉 일반 금융이해력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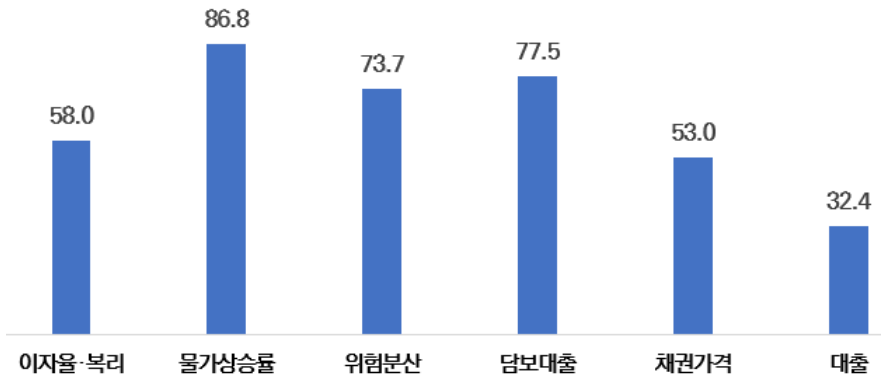
(단위: %)



주: x축은 정답을 맞춘 문항 개수를 의미함

〈그림 III-2〉 일반 금융이해력 항목별 정답률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반 금융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령별로는 65~69세 집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은퇴 여부별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퇴직 후 재취업했거나, 현직에 있는 경우)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대체로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았다.

(표 III-1) 일반 금융이해력 정답률 및 점수

(단위: 명, %, 점)

| 구분 | | 응답자 수 | 이지율 | 물가 상승률 | 위험 분산 | 담보 대출 | 채권 가격 | 대출 | 100점 환산 점수 |
|-----------------|---------------|-------|------|--------|-------|-------|-------|------|------------|
| 전체 | | 3,000 | 58.0 | 86.8 | 73.7 | 77.5 | 53.0 | 32.4 | 63.6 |
| 성별 | 남성 | 1,470 | 64.0 | 90.7 | 78.1 | 78.3 | 57.0 | 35.8 | 67.3 |
| | 여성 | 1,530 | 52.2 | 83.0 | 69.5 | 76.7 | 49.1 | 29.1 | 59.9 |
| 연령 | 55~59세 | 832 | 54.2 | 85.6 | 77.3 | 76.3 | 55.6 | 33.1 | 63.7 |
| | 60~64세 | 799 | 55.7 | 87.5 | 73.0 | 78.0 | 51.9 | 31.8 | 63.0 |
| | 65~69세 | 719 | 60.9 | 88.0 | 73.4 | 79.7 | 52.9 | 36.0 | 65.2 |
| | 70~79세 | 650 | 62.5 | 86.0 | 70.5 | 76.0 | 50.9 | 28.2 | 62.3 |
| 은퇴 여부 | 은퇴함 | 993 | 60.9 | 89.2 | 76.2 | 78.4 | 54.8 | 31.5 | 61.2 |
| | 퇴직 후, 재취업 | 633 | 60.2 | 89.4 | 72.2 | 77.9 | 55.3 | 33.3 | 64.7 |
| | 은퇴하지 않음 | 876 | 57.3 | 86.9 | 74.2 | 79.2 | 53.1 | 35.2 | 64.3 |
| | 해당 없음 | 498 | 50.6 | 78.3 | 69.9 | 72.1 | 46.2 | 27.9 | 57.5 |
| 최종 학력 | 중학교 이하 | 90 | 48.9 | 70.0 | 54.4 | 60.0 | 37.8 | 34.4 | 50.9 |
| | 고등학교 | 868 | 54.1 | 79.7 | 68.7 | 73.2 | 44.0 | 31.6 | 58.5 |
| | 대학교 | 1,646 | 59.4 | 89.8 | 76.1 | 79.6 | 57.5 | 32.2 | 65.8 |
| | 대학원 이상 | 396 | 62.6 | 93.4 | 79.5 | 82.1 | 57.3 | 34.3 | 68.2 |
| 월 평균 개인 소득 (세후) | 100만 원 미만 | 413 | 52.3 | 82.1 | 70.7 | 75.3 | 47.9 | 30.0 | 59.7 |
| | 100~200만 원 미만 | 591 | 54.1 | 83.9 | 70.2 | 77.5 | 43.5 | 30.3 | 59.9 |
| | 200~300만 원 미만 | 614 | 55.7 | 86.6 | 72.1 | 78.0 | 55.2 | 32.6 | 63.4 |
| | 300~400만 원 미만 | 491 | 60.7 | 87.0 | 74.1 | 74.9 | 52.3 | 35.4 | 64.1 |
| | 400~500만 원 미만 | 327 | 59.9 | 90.5 | 73.4 | 78.6 | 58.4 | 33.0 | 65.6 |
| | 500~600만 원 미만 | 198 | 67.2 | 90.9 | 78.3 | 77.3 | 60.1 | 28.8 | 67.1 |
| | 600~700만 원 미만 | 113 | 57.5 | 90.3 | 81.4 | 78.8 | 57.5 | 34.5 | 66.7 |
| | 700~800만 원 미만 | 100 | 63.0 | 92.0 | 80.0 | 85.0 | 66.0 | 35.0 | 70.2 |
| 800만 원 이상 | 153 | 69.9 | 90.8 | 85.6 | 81.7 | 63.4 | 35.9 | 71.2 | |

〈표 Ⅲ-1〉 계속

| | 구분 | 응답자 수 | 이자율 | 물가 상승률 | 위험 분산 | 담보 대출 | 채권 가격 | 대출 | 100점 환산 점수 |
|------|---------------|-------|------|--------|-------|-------|-------|------|------------|
| 총 자산 | 1억 원 미만 | 606 | 54.5 | 78.1 | 65.7 | 73.1 | 43.9 | 31.2 | 57.7 |
| | 1억 원~3억 원 미만 | 680 | 56.8 | 82.8 | 68.8 | 75.4 | 45.9 | 34.6 | 60.7 |
| | 3억 원~5억 원 미만 | 402 | 57.2 | 91.0 | 78.1 | 78.1 | 54.5 | 31.8 | 65.1 |
| | 5억 원~10억 원 미만 | 620 | 58.7 | 90.6 | 78.1 | 81.9 | 55.5 | 34.0 | 66.5 |
| | 10억 원 이상 | 692 | 62.1 | 92.3 | 79.2 | 79.0 | 64.7 | 30.1 | 67.9 |

나. 퇴직연금

중고령자는 생애주기 상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단계에 있어 퇴직연금의 이해와 활용이 재무 안정성에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조사는 과거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현재 가입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관련 문항 4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해당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전체 응답자의 26%에 해당하는 780명이었다.

퇴직연금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

B1.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X(퇴직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 모두 수령 가능함)

B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1개 선택]

- ① 회사가 모든 운용을 대신함
 ② 연금 수령 시기만 선택함
 ③ 본인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직접 선택함
 ④ 운용과 무관함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③ 본인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직접 선택함(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예금, 펀드 등)을 선택해 운용한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B3.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 정답: ② X(퇴직연금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B4.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회사 부담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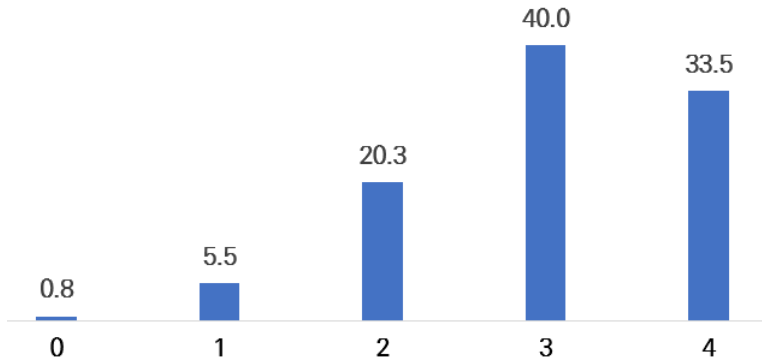
- 정답: ① O(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그 이후부터는 40% 감면됨)
-

<그림 III-3>은 네 개의 문항 중에 정답 수의 분포를 보여주며,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4문항 중 3개를 맞추었다. 문항별 정답률을 제시한 <그림 III-4>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96.5%)는 연금 수령방식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또한 퇴직연금의 운용수익과 퇴직소득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각각 67.9%, 74.7%의 응답자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가지 문항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의 역할을 묻는 문항의 정답률은 60.6%로 가장 낮았다. 이는 다른 문항들은 모두 O/X형이었던 것과 달리 해당 문항은 사지선다형이었던 점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소속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참여 여부나 운영 방식에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전체 26.5%에 해당하며, 이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비율은 68%이다. 또한 가입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제도 가입률은 53.3%이며, 그 중 DC형 가입 비율은 54.6%로 나타났다.¹⁶⁾

16) 국가데이터터 보도자료(2025. 12. 15.),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그림 III-3〉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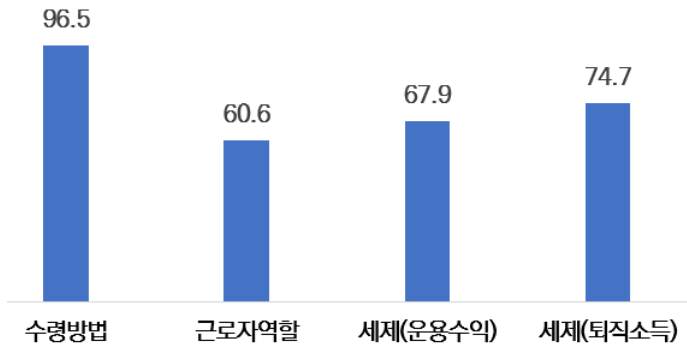


주: 1) x축은 정답을 맞춘 문항 개수를 의미함

2) 과거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780명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4〉 퇴직연금 이해력 항목별 정답률

(단위: %)



주: 과거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780명을 대상으로 함

응답자 특성별로 정답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퇴직연금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64세 사이 응답자의 퇴직연금 이해도가 가장 높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개인소득이 높을수록(800만 원 이상 제외) 퇴직연금 이해도가 높아졌다.

〈표 III-2〉 퇴직연금 이해력 정답률 및 점수

(단위: 명, %, 점)

| 구분 | | 응답자 수 | 수령방법 | 근로자 역할 | 세제 (운용 수익) | 세제 (퇴직 소득) | 100점 환산점수 |
|---------------|---------------|-------|-------|--------|------------|------------|-----------|
| 전체 | | 780 | 96.5 | 60.6 | 67.9 | 74.7 | 75.0 |
| 성별 | 남성 | 459 | 96.1 | 63.4 | 72.5 | 78.9 | 77.7 |
| | 여성 | 321 | 97.2 | 56.7 | 61.4 | 68.8 | 71.0 |
| 연령 | 55~59세 | 331 | 97.9 | 64.7 | 68.6 | 75.8 | 76.7 |
| | 60~64세 | 251 | 95.6 | 63.3 | 74.9 | 78.5 | 78.1 |
| | 65~69세 | 125 | 95.2 | 50.4 | 61.6 | 71.2 | 69.6 |
| | 70~79세 | 73 | 95.9 | 50.7 | 52.1 | 63.0 | 65.4 |
| 은퇴 여부 | 은퇴함 | 171 | 98.2 | 54.4 | 70.2 | 80.7 | 75.9 |
| | 퇴직 후, 재취업 | 200 | 93.5 | 57.0 | 67.0 | 73.5 | 72.8 |
| | 은퇴하지 않음 | 374 | 97.1 | 65.5 | 68.7 | 71.9 | 75.8 |
| | 해당 없음 | 35 | 100.0 | 60.0 | 54.3 | 82.9 | 74.3 |
| 최종학력 | 중학교 이하 | 9 | 100.0 | 55.6 | 44.4 | 55.6 | 63.9 |
| | 고등학교 | 143 | 95.8 | 53.1 | 55.9 | 69.9 | 68.7 |
| | 대학교 | 506 | 96.2 | 62.8 | 70.0 | 75.3 | 76.1 |
| | 대학원 이상 | 122 | 98.4 | 60.7 | 75.4 | 79.5 | 78.5 |
| 월평균 개인소득 (세후) | 100만 원 미만 | 41 | 92.7 | 53.7 | 61.0 | 68.3 | 68.9 |
| | 100~200만 원 미만 | 95 | 95.8 | 56.8 | 58.9 | 77.9 | 72.4 |
| | 200~300만 원 미만 | 167 | 95.8 | 56.9 | 64.7 | 71.9 | 72.3 |
| | 300~400만 원 미만 | 150 | 98.0 | 60.0 | 64.7 | 72.7 | 73.8 |
| | 400~500만 원 미만 | 96 | 96.9 | 64.6 | 74.0 | 70.8 | 76.6 |
| | 500~600만 원 미만 | 63 | 95.2 | 57.1 | 71.4 | 76.2 | 75.0 |
| | 600~700만 원 미만 | 43 | 95.3 | 58.1 | 62.8 | 88.4 | 76.2 |
| | 700~800만 원 미만 | 48 | 100.0 | 81.3 | 83.3 | 85.4 | 87.5 |
| 800만 원 이상 | 77 | 97.4 | 64.9 | 79.2 | 74.0 | 78.9 | |
| 총자산 | 1억 원 미만 | 107 | 95.3 | 60.7 | 65.4 | 64.5 | 71.5 |
| | 1억 원~3억 원 미만 | 171 | 93.6 | 51.5 | 64.9 | 73.1 | 70.8 |
| | 3억 원~5억 원 미만 | 97 | 96.9 | 56.7 | 57.7 | 70.1 | 70.4 |

〈표 Ⅲ-2〉 계속

| | 구분 | 응답자 수 | 수령방법 | 근로자 역할 | 세제 (운용 수익) | 세제 (퇴직 소득) | 100점 환산점수 |
|-----|---------------|-------|------|--------|------------|------------|-----------|
| 총자산 | 5억 원~10억 원 미만 | 171 | 96.5 | 65.5 | 63.7 | 74.3 | 75.0 |
| | 10억 원 이상 | 234 | 99.1 | 65.4 | 78.6 | 82.9 | 81.5 |

주: 과거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780명을 대상으로 함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고령자는 노후 진입을 앞두고 장기적인 의료비 및 돌봄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 본 설문에서는 노인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7개를 제시하였다.

노인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측정 문항

C1.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전체 인구의 평균 의료비보다 두 배 이상 많다.”

-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① O(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전체 평균의 약 2.52배 수준(건강보험공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155,000원, 65세 이상: 5,434,000원))

C2. 다음 중 노인간병비(일상생활지원, 시설 이용 등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지원됨
 ② 노인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③ 국민연금에서 간병비가 자동으로 지급됨
 ④ 노인간병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와 동일한 범위에서 지원됨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노인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지원, 간병, 시설 이용 등 노인간병비의 주요 재원이 되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지원하지 않음)

C3.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입소 또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간병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① O(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방문 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나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를 통해 간병과 일상생활 지원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음)

C4.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X(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 등급 결정)

C5.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방문요양 ② 시설급여 ③ 요양병원 입원비 ④ 방문간호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③ 요양병원 입원비(요양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 대상이며,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시설급여 등으로 구성됨)

C6.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연령 요건은 몇 세 이상인가요? [1개 선택]

- ① 55세 이상 ② 60세 이상 ③ 65세 이상 ④ 70세 이상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③ 65세 이상(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인정 대상이 됨)

C7.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반적인 비율은? [1개 선택]

- ① 0% ② 10~20% ③ 30~50% ④ 100%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10~20%(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 비율: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그림 III-5〉는 노인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응답자들은 전체 7문항 중 약 4.9개를 맞춰 69.3%의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III-6〉은 문항별 정답률을 통해 응답자의 이해 수준이 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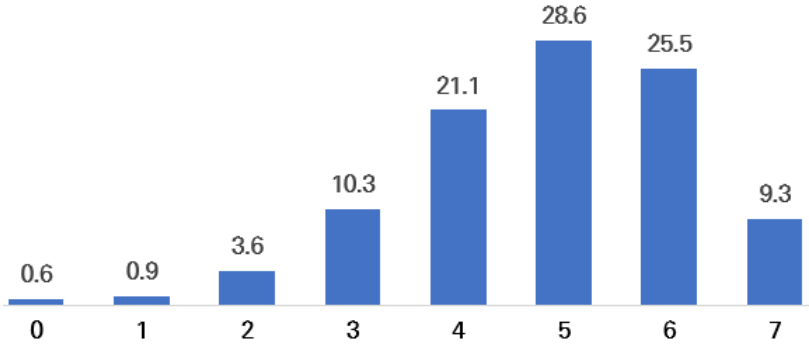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노인의 의료비 부담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전체 인구의 평균 의료비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84.9%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입소 또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간병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94.8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연령 요건이 65세 이상임을 인지한 비율도 79%에 달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과 급여범위, 그리고 장기요양인정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이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간병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7.1%, ‘노인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등급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는 62.1%,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는 요양병원 입원비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39%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정답률이 낮았다.

〈그림 III-5〉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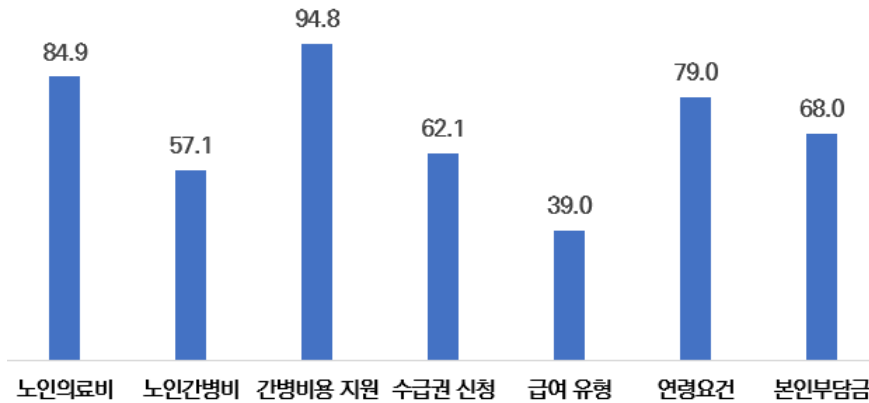
(단위: %)



주: x축은 정답 개수를 의미함

〈그림 III-6〉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항목별 정답률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여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남성보다 3.5%p 높게 나타났다. 노인 의료비 부담 및 장기요양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준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의 정

답률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60~64세 집단의 이해도가 71.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장기요양제도 이용과 가장 밀접한 연령대인 70~79세의 정답률을 65.6%로 가장 낮게 나타냈다. 은퇴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은퇴자의 정답률은 70%, 非은퇴자들(은퇴하지 않음+퇴직 후 재취업)의 정답률은 69.7%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교육 수준과 총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개인의 월평균 소득 수준과는 뚜렷한 정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60~64세 연령층의 은퇴 여부 특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II-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정답률 및 점수

(단위: 명, %, 점)

| 구분 | | 응답자 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점수 (100점 환산) |
|-------|-----------|-------|------|------|------|------|------|------|------|--------------|
| 전체 | | 3,000 | 84.9 | 57.1 | 94.8 | 62.1 | 39.0 | 79.0 | 68.0 | 69.3 |
| 성별 | 남성 | 1,470 | 84.9 | 55.7 | 94.4 | 59.7 | 32.7 | 78.8 | 66.2 | 67.5 |
| | 여성 | 1,530 | 84.9 | 58.5 | 95.2 | 64.4 | 45.1 | 79.2 | 69.7 | 71.0 |
| 연령 | 55~59세 | 832 | 85.2 | 56.0 | 93.4 | 60.1 | 40.6 | 80.8 | 68.3 | 69.2 |
| | 60~64세 | 799 | 87.2 | 57.6 | 95.7 | 64.8 | 42.2 | 80.4 | 71.5 | 71.3 |
| | 65~69세 | 719 | 85.8 | 58.3 | 96.4 | 65.0 | 41.2 | 77.3 | 68.6 | 70.4 |
| | 70~79세 | 650 | 80.6 | 56.8 | 93.7 | 58.0 | 30.8 | 76.8 | 62.8 | 65.6 |
| 은퇴 여부 | 은퇴함 | 993 | 84.9 | 60.7 | 95.7 | 63.2 | 38.0 | 79.4 | 68.1 | 70.0 |
| | 퇴직 후, 재취업 | 633 | 85.5 | 57.0 | 95.3 | 67.1 | 39.8 | 81.0 | 70.8 | 70.9 |
| | 은퇴하지 않음 | 876 | 85.0 | 55.7 | 95.2 | 59.2 | 38.5 | 78.3 | 69.3 | 68.8 |
| | 해당 없음 | 498 | 83.9 | 52.6 | 91.8 | 58.2 | 41.2 | 76.7 | 62.0 | 66.6 |
| 최종 학력 | 중학교 이하 | 90 | 77.8 | 47.8 | 90.0 | 53.3 | 32.2 | 73.3 | 47.8 | 60.3 |
| | 고등학교 | 868 | 84.0 | 52.1 | 93.3 | 55.4 | 35.6 | 77.9 | 66.5 | 66.4 |
| | 대학교 | 1,646 | 85.7 | 59.3 | 95.5 | 64.6 | 41.4 | 80.1 | 69.3 | 70.8 |
| | 대학원 이상 | 396 | 85.4 | 61.4 | 96.2 | 68.2 | 38.4 | 78.0 | 70.7 | 71.2 |

〈표 Ⅲ-3〉 계속

| 구분 | | 응답자 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점수 (100점 환산) |
|-----------------|---------------|-------|------|------|------|------|------|------|------|--------------|
| 월 평균 개인 소득 (세후) | 100만 원 미만 | 413 | 82.8 | 51.8 | 93.9 | 58.1 | 38.0 | 77.5 | 62.2 | 66.3 |
| | 100~200만 원 미만 | 591 | 82.9 | 53.1 | 94.4 | 59.7 | 38.9 | 78.8 | 67.9 | 68.0 |
| | 200~300만 원 미만 | 614 | 85.7 | 55.7 | 94.8 | 65.0 | 40.9 | 80.1 | 72.6 | 70.7 |
| | 300~400만 원 미만 | 491 | 84.3 | 59.7 | 94.1 | 67.8 | 41.3 | 81.5 | 68.2 | 71.0 |
| | 400~500만 원 미만 | 327 | 87.5 | 59.6 | 95.1 | 58.7 | 37.9 | 78.6 | 68.5 | 69.4 |
| | 500~600만 원 미만 | 198 | 83.3 | 65.7 | 95.5 | 61.6 | 36.9 | 71.2 | 62.6 | 68.1 |
| | 600~700만 원 미만 | 113 | 83.2 | 58.4 | 93.8 | 61.9 | 34.5 | 74.3 | 66.4 | 67.5 |
| | 700~800만 원 미만 | 100 | 90.0 | 67.0 | 97.0 | 64.0 | 40.0 | 85.0 | 73.0 | 73.7 |
| 800만 원 이상 | 153 | 91.5 | 60.8 | 98.7 | 58.2 | 35.3 | 81.0 | 68.6 | 70.6 | |
| 총자산 | 1억 원 미만 | 606 | 79.4 | 49.8 | 92.6 | 55.8 | 36.0 | 74.3 | 67.7 | 65.1 |
| | 1억 원~3억 원 미만 | 680 | 85.1 | 53.8 | 94.3 | 60.9 | 38.2 | 82.2 | 68.8 | 69.1 |
| | 3억 원~5억 원 미만 | 402 | 84.8 | 58.5 | 95.8 | 63.2 | 41.8 | 79.6 | 65.4 | 69.9 |
| | 5억 원~10억 원 미만 | 620 | 86.5 | 58.7 | 96.0 | 64.4 | 40.8 | 77.9 | 67.1 | 70.2 |
| | 10억 원 이상 | 692 | 88.2 | 64.6 | 95.7 | 66.0 | 39.3 | 80.5 | 69.8 | 72.0 |

주: ① 노인의료비, ② 노인간병비, ③ 간병비용 지원, ④ 수급권 신청, ⑤ 급여 유형, ⑥ 연령요건, ⑦ 본인부담금

라. 재무관리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

마지막으로 주거비용 관리, 노인 돌봄비용 관리, 기초연금 신청, 은행 계좌 잔액 확인, 가격 비교 웹사이트 사용, 보험이나 저축상품 비교, 수급 가능한 복지혜택 확인, 정확한 세금 납부 여부 확인 등 재무관리와 관련된 일상적인 활동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 돌봄비용 관리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고(6점 척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 시 59.5점), 그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낮았다(100점 환산 시 62.7점).

〈표 III-4〉 재무관리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

(단위: %, 점)

| 구분 | 모른다 ①~③ | 안다 ④~⑥ | 6점 평균 | 100점 환산 |
|--|------------|-----------|-------|---------|
| 주거비용 관리(전세금, 월세, 주택대출 상환금, 관리비, 수도전기 요금 등) | 12.7 | 87.3 | 4.80 | 80.0 |
| 노인 돌봄비용 관리(요양병원 입원비, 요양시설 이용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간병비,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료 등) | 45.4 | 54.6 | 3.57 | 59.5 |
| 기초연금 신청 | 38.6 | 61.4 | 3.87 | 64.5 |
| 은행 계좌 잔액 확인 | 4.9 | 95.1 | 5.31 | 88.5 |
| 가격 비교 웹사이트 사용 | 18.2 | 81.8 | 4.59 | 76.5 |
| 다양한 유형의 보험 비교 | 37.5 | 62.5 | 3.88 | 64.7 |
| 저축 상품 비교 | 27.6 | 72.4 | 4.17 | 69.5 |
|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 | 40.6 | 59.4 | 3.76 | 62.7 |
|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 | 28.4 | 71.6 | 4.20 | 70.0 |

주: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6점 척도로 응답함

2. 금융행동: 돈 관리, 재무계획

앞 절에서는 중고령자의 일반적인 금융이해력을 비롯하여 퇴직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을 살펴보았다. 중고령기는 금융지식의 보유를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일상적 재무관리와 노후 대비 행동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고령자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재무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가. 일상적 재무관리

먼저, 일상적 재무관리와 관련된 금융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수입·지출 관리 방식과 신용카드 대금 관리에 대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특히 신용카드 대금은 단기 부채 및 현금 흐름 관리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재무 건전성과 연관이 깊을 수 있다.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써 은행거래 내역이나 계좌 잔액을 검토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활용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74.7%가 이 방법을 활용한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가계부나 노트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19.6%)가 뒤를 이었다. 한편 스프레드시트나 자산관리 전문 모바일 앱·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13%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머릿속으로 관리한다는 응답도 11.5%로 일정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예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6.4%로 소수이지만 존재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 남녀 모두 주요 수단으로 은행거래 내역 및 계좌 잔액 검토를 선택했으나, 세부적으로 남성은 스프레드시트 활용 비율(18.8%)이 여성(8.8%)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가계부·노트 기입 활용(25.5%)이 남성(1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동시에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은행거래 내역·계좌 잔액 검토와 가계부·노트 기록 등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의 활용이 높았다. 반대로 엑셀 등 스프레드시트나 자산관리 전문 모바일 앱·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고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중고령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기반 관리 방식이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종학력 및 경제적 기반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고학력·고소득·고자산 집단일수록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스프레드시트 또는 자산관리 전문 앱 및 온라인 서비스 활용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III-5〉 수입·지출 관리 방법(복수 선택)

(단위: 명, %)

| 구분 | 응답자 수 | 은행 거래 내역 계좌 잔액 검토 | 가계 부나 노트 | 엑셀 등 스프레드시트 | 자산 관리 전문 모바일 앱, 온라인 서비스 | 머릿속으로 관리 | 관리 하지 않음 | 기타 | |
|----|-------|-------------------|----------|-------------|-------------------------|----------|----------|-----|-----|
| 전체 | 3,000 | 74.7 | 19.6 | 13.7 | 13.5 | 11.5 | 6.4 | 0.6 | |
| 성별 | 남성 | 1,470 | 72.2 | 13.5 | 18.8 | 13.5 | 11.8 | 7.1 | 0.5 |
| | 여성 | 1,530 | 77.2 | 25.5 | 8.8 | 13.5 | 11.2 | 5.7 | 0.7 |

〈표 III-5〉 계속

| 구분 | 응답자 수 | 은행 거래 내역 계좌 잔액 검토 | 가계 부나 노트 | 엑셀 등 스프레드 시트 | 자산 관리 전문 모바일업, 온라인 서비스 | 머릿속으로 관리 | 관리하지 않음 | 기타 | |
|----------------|---------------|-------------------|----------|--------------|------------------------|----------|---------|------|-----|
| 연령 | 55~59세 | 832 | 71.5 | 16.9 | 17.7 | 16.5 | 10.8 | 6.0 | 0.4 |
| | 60~64세 | 799 | 73.7 | 17.3 | 13.6 | 12.9 | 12.6 | 8.3 | 0.6 |
| | 65~69세 | 719 | 77.5 | 21.8 | 12.7 | 13.1 | 11.7 | 6.0 | 0.3 |
| | 70~79세 | 650 | 77.1 | 23.4 | 9.7 | 10.8 | 10.8 | 4.9 | 1.2 |
| 은퇴 여부 | 은퇴함 | 993 | 75.3 | 22.0 | 13.4 | 14.5 | 10.3 | 6.1 | 0.7 |
| | 퇴직 후, 재취업 | 633 | 74.4 | 17.7 | 17.9 | 13.6 | 13.0 | 5.4 | 0.6 |
| | 은퇴하지 않음 | 876 | 75.0 | 17.1 | 16.1 | 14.2 | 11.9 | 5.6 | 0.3 |
| | 해당 없음 | 498 | 73.5 | 21.7 | 4.6 | 10.0 | 11.4 | 9.4 | 0.8 |
| 최종 학력 | 중학교 이하 | 90 | 70.0 | 24.4 | 3.3 | 5.6 | 14.4 | 12.2 | 0.0 |
| | 고등학교 | 868 | 76.3 | 23.0 | 5.8 | 11.2 | 10.8 | 6.7 | 0.9 |
| | 대학교 | 1,646 | 74.0 | 18.3 | 16.2 | 15.4 | 12.2 | 6.2 | 0.3 |
| | 대학원 이상 | 396 | 75.5 | 16.4 | 22.7 | 12.4 | 9.6 | 5.1 | 1.3 |
| 월평균 개인 소득 (세후) | 100만 원 미만 | 413 | 72.6 | 23.5 | 5.1 | 8.7 | 12.3 | 9.9 | 1.2 |
| | 100~200만 원 미만 | 591 | 73.9 | 20.3 | 10.5 | 13.5 | 12.4 | 6.8 | 0.3 |
| | 200~300만 원 미만 | 614 | 75.1 | 19.4 | 11.1 | 14.3 | 10.6 | 5.7 | 0.5 |
| | 300~400만 원 미만 | 491 | 75.6 | 18.5 | 14.5 | 11.8 | 12.8 | 6.7 | 0.8 |
| | 400~500만 원 미만 | 327 | 76.1 | 16.2 | 17.1 | 14.1 | 10.4 | 5.5 | 0.6 |
| | 500~600만 원 미만 | 198 | 73.2 | 20.2 | 22.2 | 19.2 | 8.6 | 2.0 | 0.5 |
| | 600~700만 원 미만 | 113 | 75.2 | 16.8 | 23.0 | 13.3 | 10.6 | 3.5 | 0.0 |
| | 700~800만 원 미만 | 100 | 74.0 | 16.0 | 23.0 | 15.0 | 12.0 | 9.0 | 1.0 |
| 800만 원 이상 | 153 | 78.4 | 21.6 | 25.5 | 18.3 | 11.8 | 4.6 | 0.0 | |

〈표 III-5〉 계속

| 구분 | 응답자 수 | 은행 거래 내역 계좌 잔액 검토 | 가계 부나 노트 | 엑셀 등 스프레드 시트 | 자산 관리 전문 모바일 앱, 온라인 서비스 | 머릿속으로 관리 | 관리하지 않음 | 기타 | |
|------|---------------|-------------------|----------|--------------|-------------------------|----------|---------|------|-----|
| 총 자산 | 1억 원 미만 | 606 | 70.0 | 20.0 | 8.7 | 11.1 | 12.0 | 10.6 | 0.5 |
| | 1억 원~3억 원 미만 | 680 | 73.4 | 18.7 | 11.2 | 13.8 | 11.8 | 6.8 | 0.3 |
| | 3억 원~5억 원 미만 | 402 | 76.9 | 23.4 | 11.4 | 12.2 | 12.9 | 4.0 | 0.7 |
| | 5억 원~10억 원 미만 | 620 | 75.5 | 19.4 | 14.0 | 14.0 | 10.5 | 5.0 | 1.0 |
| | 10억 원 이상 | 692 | 78.3 | 18.2 | 21.4 | 15.5 | 10.8 | 4.9 | 0.6 |

다음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일상적 재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파악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94.7%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납부 관련하여 항상 전액을 갚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5.8%였고, 보통 전액을 갚지만 일부 잔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때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 최소 결제금액과 전액 사이를 납부하는 비율은 5.6%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전액 상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이 '항상 전액을 갚는다.'고 응답한 비율(78.4%)이 남성보다 5.3%p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액 상환 비율은 55~59세(74.8%)에서 60~64세(78.6%)로 상승한 뒤, 이후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다시 낮아지는 역U자형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70~79세에서는 전액 상환 비율이 72.2%로 가장 낮았으며, 잔액 이월(9.7%)과 부분 납부(6.5%)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별 양상은 생애주기적 특성과 관련지어 해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은 은퇴 전후 시기와 맞물리는 구간으로, 개인에 따라 소득 구조가 변화하면서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65세 이상 가구는 근로·사업소득보다 이전소득¹⁷⁾ 비중이 크게 나타나, 가용 현금흐름이 제한되는 양상을 보인다.¹⁸⁾ 이러한 생애주

17)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급여와 가족(자녀)으로부터 받는

기 여건으로 인해 일부 응답자에서 잔액 이월 또는 부분 납부를 통해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행태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은퇴 여부와 신용카드 대금 관리 방식은 평균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퇴직 후 재취업을 한 집단의 전액 상환 비율(73.6%)은 은퇴그룹(76.5%)이나 은퇴하지 않은 그룹(77.4%)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과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서 대금 관리가 다르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개인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규모가 클수록 신용카드를 항상 전액 갚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Ⅲ-6〉 신용카드 대금 관리

(단위: 명, %)

| 구분 | | 응답자 수 | 항상 전액을 갚음 | 보통 전액을 갚지만, 일부 잔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때도 있음 | 최소 결제금액과 전액 사이를 납부 | 신용카드 없음 |
|-------|-----------|-------|-----------|------------------------------------|--------------------|---------|
| 전체 | | 3,000 | 75.8 | 8.1 | 5.6 | 5.3 |
| 성별 | 남성 | 1,470 | 73.1 | 8.4 | 6.5 | 6.3 |
| | 여성 | 1,530 | 78.4 | 7.8 | 4.8 | 4.4 |
| 연령 | 55~59세 | 832 | 74.8 | 8.5 | 6.5 | 5.6 |
| | 60~64세 | 799 | 78.6 | 6.8 | 3.9 | 5.1 |
| | 65~69세 | 719 | 77.2 | 7.6 | 5.8 | 5.7 |
| | 70~79세 | 650 | 72.2 | 9.7 | 6.5 | 4.8 |
| 은퇴 여부 | 은퇴함 | 993 | 76.5 | 6.5 | 6.1 | 5.1 |
| | 퇴직 후, 재취업 | 633 | 73.6 | 10.1 | 5.8 | 6.6 |
| | 은퇴하지 않음 | 876 | 77.4 | 8.4 | 5.6 | 5.0 |
| | 해당 없음 | 498 | 74.3 | 8.0 | 4.4 | 4.6 |

생활비 지원 등이 포함됨

18) 국가데이터처(2026. 1. 12.), 「가계동향조사」, 2025 3/4,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 이상)

〈표 Ⅲ-6〉 계속

| 구분 | 응답자 수 | 항상 전액을 갚음 | 보통 전액을 갚지만, 일부 잔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때도 있음 | 최소 결제금액과 잔액 사이를 납부 | 신용카드 없음 | |
|-------------------------|---------------|--------------|---|--------------------------------|------------|-----|
| 최종학 력 | 중학교 이하 | 90 | 67.8 | 10.0 | 5.6 | 5.6 |
| | 고등학교 | 868 | 71.1 | 9.1 | 6.6 | 6.1 |
| | 대학교 | 1,646 | 77.8 | 8.0 | 5.0 | 4.7 |
| | 대학원 이상 | 396 | 79.5 | 6.1 | 6.3 | 6.3 |
| 월평균 개인 소득 (세후) | 100만 원 미만 | 413 | 67.1 | 6.3 | 5.6 | 7.7 |
| | 100~200만 원 미만 | 591 | 71.1 | 9.8 | 6.3 | 4.9 |
| | 200~300만 원 미만 | 614 | 79.3 | 8.5 | 4.7 | 4.7 |
| | 300~400만 원 미만 | 491 | 77.2 | 9.4 | 4.7 | 5.5 |
| | 400~500만 원 미만 | 327 | 78.6 | 6.4 | 7.0 | 4.9 |
| | 500~600만 원 미만 | 198 | 78.3 | 5.6 | 8.6 | 6.1 |
| | 600~700만 원 미만 | 113 | 75.2 | 13.3 | 5.3 | 5.3 |
| | 700~800만 원 미만 | 100 | 83.0 | 6.0 | 4.0 | 4.0 |
| 총자산 | 800만 원 이상 | 153 | 85.6 | 5.2 | 4.6 | 3.3 |
| | 1억 원 미만 | 606 | 61.1 | 10.7 | 7.9 | 7.8 |
| | 1억 원~3억 원 미만 | 680 | 71.0 | 10.9 | 6.3 | 5.7 |
| | 3억 원~5억 원 미만 | 402 | 77.6 | 8.7 | 6.7 | 3.5 |
| | 5억 원~10억 원 미만 | 620 | 81.9 | 5.6 | 5.0 | 5.3 |
| 10억 원 이상 | 692 | 86.8 | 4.9 | 2.9 | 3.9 | |

나. 노후 대비 행동

중고령층은 나이가 들에 따라 갑작스러운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설문에서 노인 돌봄 필요를 대비한 계획 보유 여부를 질의하였다.

그 결과, '생각은 해 보았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은 없다.'는 33.3%로 가장 높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음'은 13.7%, '잘 모르겠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대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응답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한편 노인 돌봄 대비 방식은 크게 개인이 자산을 활용해 직접 준비하는 방식과 외부 지원에 대한 기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직접 준비 방식으로는 저축(29.2%), 관련 보장성 보험 가입(25.1%), 재산 처분(8.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 지원에 대한 기대는 정부 지원(9.2%)과 가족의 비용 부담(2.3%)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돌봄 대비를 위한 직접 준비 방식 중에서도 저축 및 관련 보험 가입에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생각은 해 보았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70~79세 집단에서는 해당 응답이 39.4%에 육박해, 돌봄 대비에 대한 인지는 존재하더라도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상대적으로 젊은 중고령층에서는 노인 돌봄 상황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구체적 대비를 수행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은퇴 여부에 따라서도 응답 분포가 달랐다. '생각은 해 보았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은 없음' 선택 비율은 은퇴하지 않은 집단(28.5%)에 비해 퇴직 후 재취업 집단과 은퇴 집단에서 각각 34% 정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연령대별 응답 분포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젊은 중고령층은 은퇴 이전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학력 및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계획 행동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학력, 소득, 자산이 높을수록 구체적인 실천을 안 한다고 응답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동시에 저축, 보험, 재산 처분 등 직접 준비 방식으로 대비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고학력·고소득·고자산 집단 일수록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 돌봄 상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II-7〉 노인 돌봄에 대한 계획(복수 선택)

(단위: 명, %)

| 구분 | | 응답자 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전체 | | 3,000 | 33.3 | 29.2 | 25.1 | 13.7 | 9.2 | 8.3 | 2.3 | 1.9 | 0.3 |
| 성별 | 남성 | 1,470 | 33.0 | 26.7 | 22.9 | 16.9 | 8.0 | 8.8 | 2.0 | 1.9 | 0.1 |
| | 여성 | 1,530 | 33.5 | 31.6 | 27.1 | 10.7 | 10.3 | 7.8 | 2.5 | 2.0 | 0.5 |
| 연령 | 55~59세 | 832 | 31.3 | 29.9 | 25.7 | 15.5 | 8.3 | 8.2 | 2.0 | 2.5 | 0.4 |
| | 60~64세 | 799 | 30.4 | 29.8 | 26.7 | 14.8 | 9.6 | 7.6 | 2.0 | 1.9 | 0.3 |
| | 65~69세 | 719 | 33.2 | 30.7 | 24.8 | 12.9 | 8.9 | 9.2 | 1.7 | 1.7 | 0.4 |
| | 70~79세 | 650 | 39.4 | 25.8 | 22.6 | 11.1 | 10.0 | 8.3 | 3.5 | 1.5 | 0.2 |
| 은퇴 여부 | 은퇴함 | 993 | 34.0 | 30.0 | 22.6 | 13.1 | 8.1 | 9.8 | 2.3 | 1.3 | 0.2 |
| | 퇴직 후, 재취업 | 633 | 33.8 | 29.1 | 27.6 | 12.5 | 10.7 | 9.3 | 2.1 | 1.1 | 0.3 |
| | 은퇴하지 않음 | 876 | 28.5 | 33.0 | 29.6 | 15.5 | 8.2 | 7.8 | 1.9 | 1.6 | 0.3 |
| | 해당 없음 | 498 | 39.4 | 21.1 | 18.9 | 13.5 | 11.0 | 5.0 | 3.0 | 4.8 | 0.4 |
| 최종 학력 | 중학교 이하 | 90 | 43.3 | 12.2 | 18.9 | 12.2 | 13.3 | 4.4 | 3.3 | 8.9 | 0.0 |
| | 고등학교 | 868 | 33.6 | 24.3 | 24.5 | 15.4 | 10.6 | 6.1 | 2.4 | 2.1 | 0.2 |
| | 대학교 | 1,646 | 33.5 | 30.4 | 25.0 | 13.6 | 8.3 | 8.7 | 2.1 | 1.8 | 0.4 |
| | 대학원 이상 | 396 | 29.3 | 38.9 | 28.0 | 10.9 | 8.6 | 12.4 | 2.3 | 0.8 | 0.3 |
| 월 평균 개인 소득 (세후) | 100만 원 미만 | 413 | 39.0 | 18.4 | 16.7 | 14.8 | 11.1 | 4.6 | 2.7 | 5.6 | 0.2 |
| | 100~200만 원 미만 | 591 | 37.2 | 23.7 | 22.2 | 14.2 | 11.2 | 6.3 | 3.7 | 1.9 | 0.0 |
| | 200~300만 원 미만 | 614 | 36.8 | 28.3 | 23.6 | 12.1 | 10.4 | 8.3 | 1.3 | 1.5 | 0.5 |
| | 300~400만 원 미만 | 491 | 31.6 | 29.3 | 29.5 | 13.2 | 9.4 | 7.3 | 1.8 | 1.8 | 0.6 |
| | 400~500만 원 미만 | 327 | 29.7 | 31.8 | 25.7 | 18.3 | 4.6 | 7.6 | 2.1 | 1.5 | 0.3 |
| | 500~600만 원 미만 | 198 | 25.3 | 37.9 | 33.3 | 14.6 | 9.1 | 12.6 | 1.5 | 0.0 | 0.0 |
| | 600~700만 원 미만 | 113 | 25.7 | 45.1 | 23.9 | 12.4 | 8.0 | 13.3 | 4.4 | 0.9 | 0.0 |

〈표 III-7〉 계속

| 구분 | | 응답자 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월 평균 개인 소득 (세후) | 700~800만 원 미만 | 100 | 22.0 | 48.0 | 39.0 | 7.0 | 7.0 | 17.0 | 1.0 | 0.0 | 0.0 |
| | 800만 원 이상 | 153 | 24.8 | 41.8 | 30.1 | 11.8 | 2.6 | 15.7 | 1.3 | 0.0 | 0.7 |
| 총 자산 | 1억 원 미만 | 606 | 40.4 | 18.8 | 20.1 | 14.2 | 11.4 | 2.3 | 1.8 | 3.3 | 0.7 |
| | 1억 원~3억 원 미만 | 680 | 36.6 | 23.2 | 21.6 | 16.5 | 9.7 | 3.4 | 2.8 | 2.8 | 0.1 |
| | 3억 원~5억 원 미만 | 402 | 34.3 | 26.6 | 27.4 | 12.2 | 8.7 | 8.5 | 2.5 | 2.0 | 0.7 |
| | 5억 원~10억 원 미만 | 620 | 30.0 | 35.2 | 25.6 | 14.4 | 8.2 | 8.7 | 2.4 | 1.0 | 0.0 |
| | 10억 원 이상 | 692 | 26.0 | 40.3 | 30.9 | 11.0 | 7.8 | 17.9 | 1.9 | 0.7 | 0.1 |

주: “갑작스러운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귀찮게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노인 돌봄 서비스, 간병 서비스, 요양시설, 치료 등)”에 대한 응답

- ① 생각은 해 보았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은 없음
- ② 비용 충당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음
- ③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함
- ④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음
- ⑤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기를 기대함
- ⑥ 재산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 ⑦ 가족이 비용을 부담해 주기를 기대함
- ⑧ 잘 모르겠음
- ⑨ 기타

다음으로, 갑작스러운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인해 응답자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리 위임장 등 가족 등 제3자가 응답자를 대신해 은행 계좌나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는지 질의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6%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재산관리 위임장 등 대비를 했다는 응답률은 낮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유사 시 제3자가 응답자를 대신해 금융 계좌나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경우가 많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관련 조치를 했다는 응답률이 높아졌다. 은퇴 여부는 재무 관련 대비 여부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 규모가 클수록 대비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재산관리 위임장 등 마련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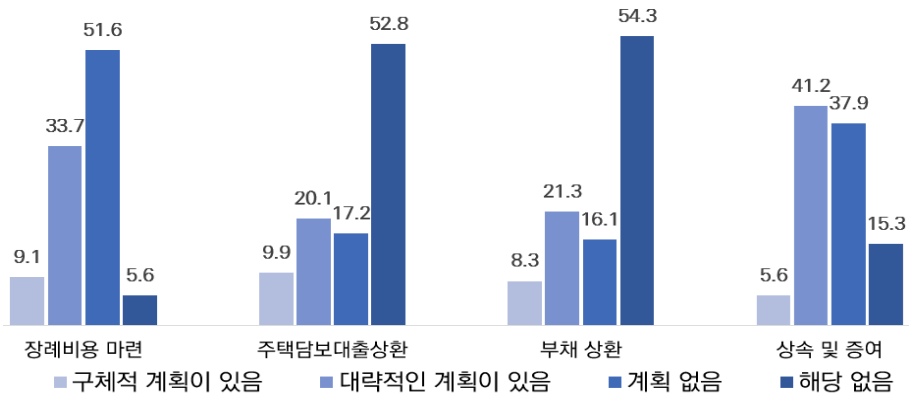
| 구분 | | 응답자 수 |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
|---------------------|---------------|-------|------|------|--------|
| 전체 | | 3,000 | 16.0 | 81.8 | 2.2 |
| 성별 | 남성 | 1,470 | 15.0 | 83.0 | 2.0 |
| | 여성 | 1,530 | 16.9 | 80.7 | 2.4 |
| 연령 | 55~59세 | 832 | 13.1 | 83.7 | 3.2 |
| | 60~64세 | 799 | 15.6 | 82.6 | 1.8 |
| | 65~69세 | 719 | 17.2 | 81.2 | 1.5 |
| | 70~79세 | 650 | 18.8 | 79.2 | 2.0 |
| 은퇴 여부 | 은퇴함 | 993 | 16.1 | 82.2 | 1.7 |
| | 퇴직 후, 재취업 | 633 | 14.4 | 83.7 | 1.9 |
| | 은퇴하지 않음 | 876 | 16.6 | 81.7 | 1.7 |
| | 해당 없음 | 498 | 16.9 | 78.9 | 4.2 |
| 최종학력 | 중학교 이하 | 90 | 16.7 | 80.0 | 3.3 |
| | 고등학교 | 868 | 15.2 | 81.9 | 2.9 |
| | 대학교 | 1,646 | 15.7 | 82.3 | 2.0 |
| | 대학원 이상 | 396 | 18.9 | 80.1 | 1.0 |
| 월평균 개인소득 (세후) | 100만 원 미만 | 413 | 15.7 | 80.1 | 4.1 |
| | 100~200만 원 미만 | 591 | 13.2 | 84.3 | 2.5 |
| | 200~300만 원 미만 | 614 | 15.3 | 82.1 | 2.6 |
| | 300~400만 원 미만 | 491 | 13.8 | 84.5 | 1.6 |
| | 400~500만 원 미만 | 327 | 18.7 | 80.4 | 0.9 |
| | 500~600만 원 미만 | 198 | 16.7 | 82.8 | 0.5 |
| | 600~700만 원 미만 | 113 | 22.1 | 75.2 | 2.7 |
| | 700~800만 원 미만 | 100 | 22.0 | 78.0 | 0.0 |
| 800만 원 이상 | 153 | 22.2 | 76.5 | 1.3 | |
| 총자산 | 1억 원 미만 | 606 | 14.7 | 81.8 | 3.5 |
| | 1억 원~3억 원 미만 | 680 | 16.0 | 81.3 | 2.6 |
| 총자산 | 3억 원~5억 원 미만 | 402 | 14.2 | 83.3 | 2.5 |
| | 5억 원~10억 원 미만 | 620 | 17.1 | 81.3 | 1.6 |
| | 10억 원 이상 | 692 | 17.2 | 81.9 | 0.9 |

마지막으로, 장례비용, 부채 정리, 주택담보대출 상환, 상속·증여 계획 등 노후 정리 및 자산 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응답자가 판단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그 외 부채 상환 계획이 필요한 경우는 45~47% 정도였고, 장례비용 마련이나 상속 및 증여 계획이 필요한 경우는 85~94% 정도였다. 준비 항목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응답자만을 고려할 때, 장례비용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4.7%,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4.7%였다.

〈그림 III-7〉 장례비용, 부채상환, 상속·증여 계획

(단위: %)



주: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계획이 있으신가요?"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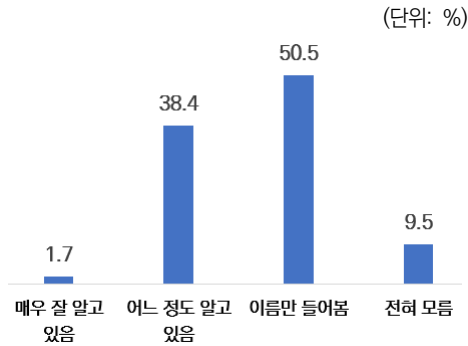
3. 금융행동: 신탁

중고령층은 건강 악화나 인지기능 저하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자산이 적절한 시기와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중 하나로 신탁이 논의되고 있어 신탁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수준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신탁제도에 대해 적어도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40.1%였으며, 약 60%는 신탁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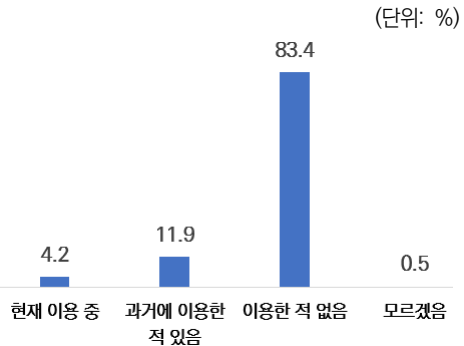
또한 신탁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40.1%)을 대상으로 신탁 이용 경험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과거에 신탁을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16%에 그쳤다.

〈그림 III-8〉 신탁제도 인지도



주: “귀하는 신탁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

〈그림 III-9〉 신탁 이용 경험



주: 신탁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1,202명에게 “현재 신탁제도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라고 질의

이후 동일 집단 중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신탁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어서 현재 신탁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들에게 신탁을 이용할 의향을 6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의향이 있다고(④~⑥) 응답한 비율은 62.7%였다.

성별에 따른 신탁제도 이용 의향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여성의 이용 의향이 남성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64세 연령대의 이용 의향(65.7%)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5~59세(64.6%)가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젊은 층고령층에서 신탁제도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퇴 여부에 따라서는 퇴직 후 재취업 집단의 이용 의향이 69.5%로 가장 높았으며, 은퇴하지 않은 집단(62%), 은퇴 집단(59.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집단의 이용 의향(68.8%)이 가장 높았고, 이후 중졸(66.7%), 대졸(64.6%), 고졸 집단이(54.1%) 뒤를 이었다. 월평균 소득 수준별로 비교하면,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72.4%)에서 신탁 이용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산 규모

별로도 자산이 가장 큰 집단의 이용 의향(68.9%)이 가장 높았다. 다만 신탁 이용이 학력,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일관되게 증가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탁제도

신탁제도는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 처분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 금융재산 신탁: 금융기관에 현금·부동산·증권 등을 맡겨 운용하고, 치매·상속 시점 등 특정 상황에 자산 처분·지급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제도(치매 신탁, 생애설계 신탁 등)
- 후견신탁: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수탁자가 피후견인(치매 등으로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며, 그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자산을 피후견인의 생계, 치료,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신탁
-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대신 생전에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 재산 승계를 설계하는 신탁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미리 유산 분배를 자동화할 수 있음
- 생전증여신탁: 생전 증여를 신탁 형태로 설계하여, 교육·결혼·양육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또는 시점마다 자산을 지급하는 구조로 제공됨

〈표 III-9〉 신탁제도 이용 의향

(단위: 명, %, 점)

| 구분 | | 응답자 수 | ①~③ | ④~⑥ | 6점 평균 |
|-------|-----------|-------|------|------|-------|
| 전체 | | 1,151 | 37.3 | 62.7 | 3.66 |
| 성별 | 남성 | 653 | 38.0 | 62.0 | 3.65 |
| | 여성 | 498 | 36.3 | 63.7 | 3.66 |
| 연령 | 55~59세 | 280 | 35.4 | 64.6 | 3.74 |
| | 60~64세 | 312 | 34.3 | 65.7 | 3.66 |
| | 65~69세 | 299 | 39.1 | 60.9 | 3.64 |
| | 70~79세 | 260 | 40.8 | 59.2 | 3.57 |
| 은퇴 여부 | 은퇴함 | 408 | 40.7 | 59.3 | 3.55 |
| | 퇴직 후, 재취업 | 292 | 30.5 | 69.5 | 3.88 |
| | 은퇴하지 않음 | 321 | 38.0 | 62.0 | 3.61 |
| | 해당 없음 | 130 | 40.0 | 60.0 | 3.58 |
| 최종학력 | 중학교 이하 | 21 | 33.3 | 66.7 | 3.71 |
| | 고등학교 | 279 | 45.9 | 54.1 | 3.41 |
| | 대학교 | 681 | 35.4 | 64.6 | 3.70 |
| | 대학원 이상 | 170 | 31.2 | 68.8 | 3.86 |

〈표 III-9〉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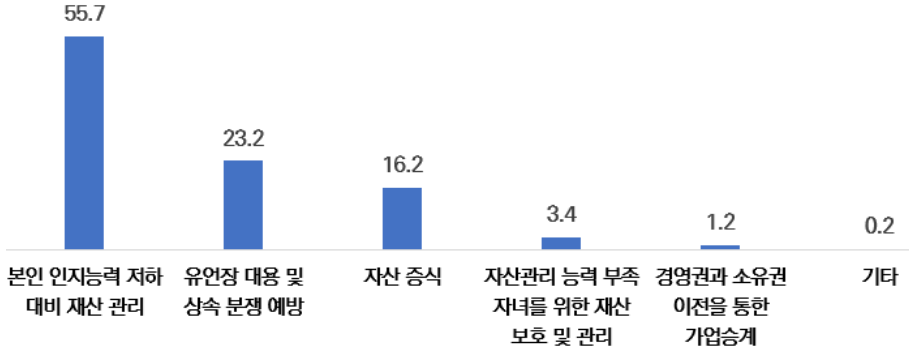
| 구분 | | 응답자 수 | ①~③ | ④~⑥ | 6점 평균 |
|---------------------|---------------|-------|------|------|-------|
| 월평균 개인소득 (세후) | 100만 원 미만 | 113 | 42.5 | 57.5 | 3.50 |
| | 100~200만 원 미만 | 200 | 37.0 | 63.0 | 3.67 |
| | 200~300만 원 미만 | 241 | 38.2 | 61.8 | 3.52 |
| | 300~400만 원 미만 | 192 | 40.1 | 59.9 | 3.54 |
| | 400~500만 원 미만 | 136 | 35.3 | 64.7 | 3.81 |
| | 500~600만 원 미만 | 91 | 31.9 | 68.1 | 3.91 |
| | 600~700만 원 미만 | 54 | 40.7 | 59.3 | 3.69 |
| | 700~800만 원 미만 | 48 | 37.5 | 62.5 | 3.67 |
| | 800만 원 이상 | 76 | 27.6 | 72.4 | 3.97 |
| 총자산 | 1억 원 미만 | 184 | 47.3 | 52.7 | 3.38 |
| | 1억 원~3억 원 미만 | 222 | 34.7 | 65.3 | 3.64 |
| | 3억 원~5억 원 미만 | 149 | 35.6 | 64.4 | 3.70 |
| | 5억 원~10억 원 미만 | 258 | 41.5 | 58.5 | 3.60 |
| | 10억 원 이상 | 338 | 31.1 | 68.9 | 3.84 |

주: 현재 신탁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들(1,151명)에게 '앞으로 신탁제도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6점 척도로 응답함(① 전혀 의향 없음, ..., ⑥ 매우 의향 있음)

신탁제도 이용에 '전혀 의향 없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1,055명)으로, 신탁을 이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본인의 인지능력 저하 대비 재산관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55.7%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 유언장 대응 및 상속분쟁 예방(23.2%), 자산 증식(16.2%), 자산관리 능력 부족 자녀를 위한 재산 보호 및 관리(3.4%), 경영권과 소유권 이전을 통한 기업승계(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신탁제도 이용 목적

(단위: %)



주: 현재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중, 전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제외한 1,055명을 대상으로 함

현재 신탁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1명이었는데,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탁상품을 이용하는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고, 증권회사가 23.5%, 신탁회사가 13.7%, 보험회사가 7.8% 순이었다. 추가적으로 신탁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한 47명에게 신탁상품을 추가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57.4%가 자산 증식이라고 응답하였고, 23.4%가 본인 인지능력 저하 대비 재산 관리라고 응답하였다.

4. 금융행동: 금융자문 및 정보 검색

금융상품과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정보 접근성과 탐색 역량의 차이가 재무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자문 및 정보검색 관련 설문 결과를 통해 재무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조언 활용 행태를 점검하였다.

재무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언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1%였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언을 구한다는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은퇴 여부 별로는 현직에 있거나,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언을 구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조언 활용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월평균 소득 역시 전반적으로 조언 활용도와 비례하는 경향이 보였으나, 고소득 구간(700~800만 원)에서는 인접 소득 구간 대비 조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예외적 양상이 관찰되었다.

〈표 Ⅲ-10〉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 활용 여부

(단위: 명, %)

| 구분 | | 응답자 수 | 예 | 아니오 |
|---------------------|---------------|-------|------|------|
| 전체 | | 3,000 | 43.1 | 56.9 |
| 성별 | 남성 | 1,470 | 40.2 | 59.8 |
| | 여성 | 1,530 | 45.8 | 54.2 |
| 연령 | 55~59세 | 832 | 48.9 | 51.1 |
| | 60~64세 | 799 | 45.3 | 54.7 |
| | 65~69세 | 719 | 37.4 | 62.6 |
| | 70~79세 | 650 | 39.1 | 60.9 |
| 은퇴 여부 | 은퇴함 | 993 | 40.4 | 59.6 |
| | 퇴직 후, 재취업 | 633 | 46.0 | 54.0 |
| | 은퇴하지 않음 | 876 | 44.9 | 55.1 |
| | 해당 없음 | 498 | 41.6 | 58.4 |
| 최종학력 | 중학교 이하 | 90 | 36.7 | 63.3 |
| | 고등학교 | 868 | 39.5 | 60.5 |
| | 대학교 | 1,646 | 44.0 | 56.0 |
| | 대학원 이상 | 396 | 48.5 | 51.5 |
| 월평균 개인소득 (세후) | 100만 원 미만 | 413 | 39.7 | 60.3 |
| | 100~200만 원 미만 | 591 | 40.8 | 59.2 |
| | 200~300만 원 미만 | 614 | 42.8 | 57.2 |
| | 300~400만 원 미만 | 491 | 42.2 | 57.8 |
| | 400~500만 원 미만 | 327 | 45.6 | 54.4 |
| | 500~600만 원 미만 | 198 | 46.5 | 53.5 |
| | 600~700만 원 미만 | 113 | 51.3 | 48.7 |
| | 700~800만 원 미만 | 100 | 42.0 | 58.0 |
| 800만 원 이상 | 153 | 49.7 | 50.3 | |
| 총자산 | 1억 원 미만 | 606 | 40.1 | 59.9 |
| | 1억 원~3억 원 미만 | 680 | 40.4 | 59.6 |
| | 3억 원~5억 원 미만 | 402 | 43.8 | 56.2 |

〈표 Ⅲ-1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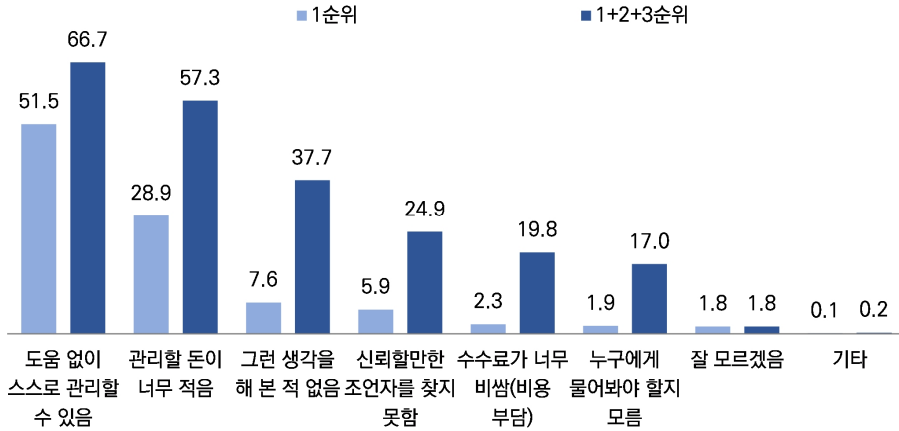
| | 구분 | 응답자 수 | 예 | 아니오 |
|-----|---------------|-------|------|------|
| 총자산 | 5억 원~10억 원 미만 | 620 | 44.5 | 55.5 |
| | 10억 원 이상 | 692 | 46.5 | 53.5 |

구체적인 활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재무관리 관련 의사결정 시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도구 등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708명을 대상으로 조언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였다. 응답자는 비활용 사유를 1~3순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조언을 구하지 않는 주요 원인(1순위)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 5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리할 돈이 너무 적음'(28.9%), '생각해 본 적 없음'(7.6%), '신뢰할 만한 조언자가 없음'(5.9%), '비용부담'(2.3%), '조언 구할 대상을 모름'(1.9%) 순으로 나타났다. 1~3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하더라도 각 항목의 순위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림 Ⅲ-11〉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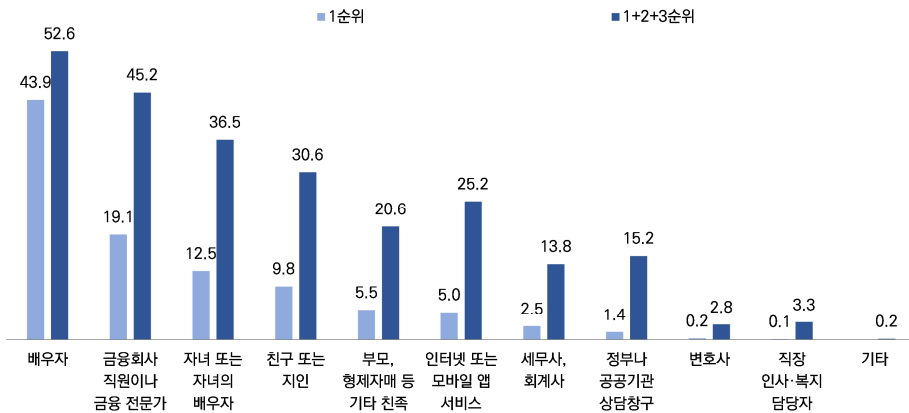
주: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708명을 대상으로 함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한다고 응답한 1,292명에게도 추가 질문을 하였다. 먼저 주로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질문하였고, 응답자는 1~3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순위 기준으로는 배우자(43.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융 전문가(19.1%),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12.5%), 친구나 지인(9.8%), 부모,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5.5%),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서비스(5%), 세무사/회계사(2.5%) 순으로 나타났다. 1~3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도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 비율(25.2%)이 부모,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2〉 재무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조언을 구하는 대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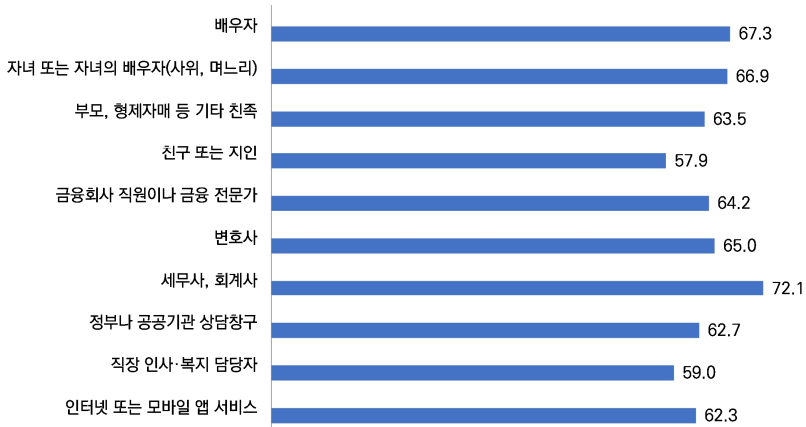


주: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한다고 응답한 1,292명을 대상으로 함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하는 대상으로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1~3순위)에 대해 조언 만족도를 6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아래 그림은 대상별 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세무사나 회계사에 대한 만족도(72.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배우자(67.3%),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66.9%), 변호사(65%),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융 전문가(64.2%) 순으로 높았다.

〈그림 III-13〉 재무관리 관련 조언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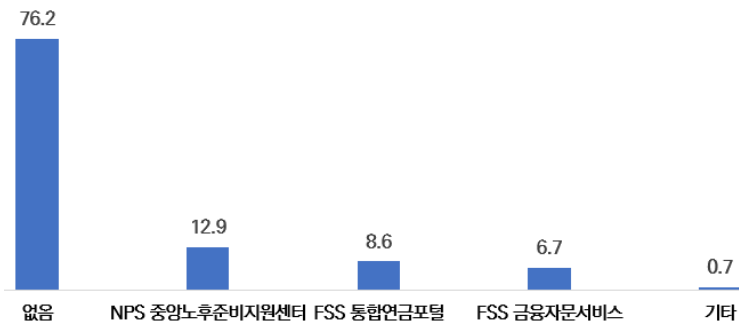


주: 만족도를 6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그림은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임

재무관리 관련 조언 활용과 상관없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은퇴기 재무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전체 76.2%는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해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12.9%,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8.6%,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는 6.7%였다. 재무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들이 출시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 경험은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4〉 은퇴기 재무관리 정보 제공기관 이용 경험

(단위: %)



주: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센터는 대면, 온라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온라인;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는 대면, 전화, 온라인이 가능함

방문 또는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금융감독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재무관리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모두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에서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표 III-11〉 공공 재무관리 정보 만족도

(단위: %,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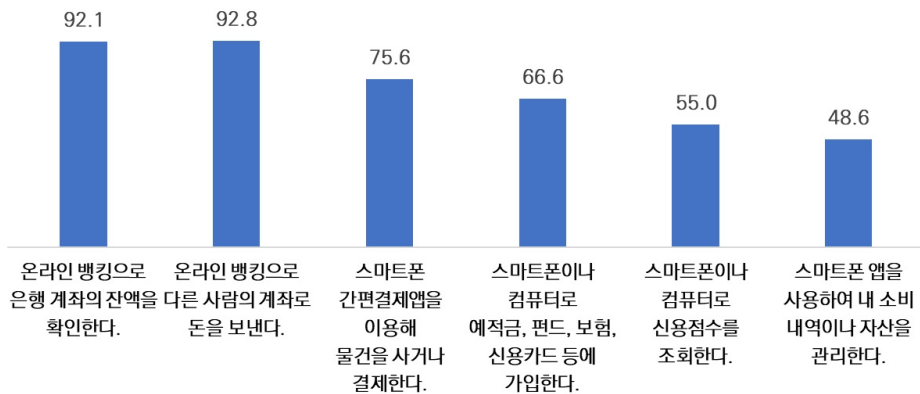
| 구분 | 불만족 ①~③ | 만족 ④~⑥ | 6점 평균 | 응답자 수 |
|-------------------|------------|-----------|-------|-------|
| 금융감독원 자문서비스 | 28.5 | 71.5 | 4.02 | 200 |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22.9 | 77.1 | 4.21 | 258 |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24.4 | 75.6 | 4.19 | 386 |

주: “귀하께서는 방문 또는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재무관리 정보 제공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6점 척도로 응답함

한편 〈그림 III-15〉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정도를 보여주는데, 온라인 बैं킹을 이용한 계좌 잔액 확인이나 이체 이용 비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편결제앱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75.6%,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금융상품을 구입한다는 비율은 66.6% 수준이었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소비내역을 확인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비율은 48.6%에 불과했다.

〈그림 III-15〉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비율

(단위: %)



5. 금융행동: 연금 인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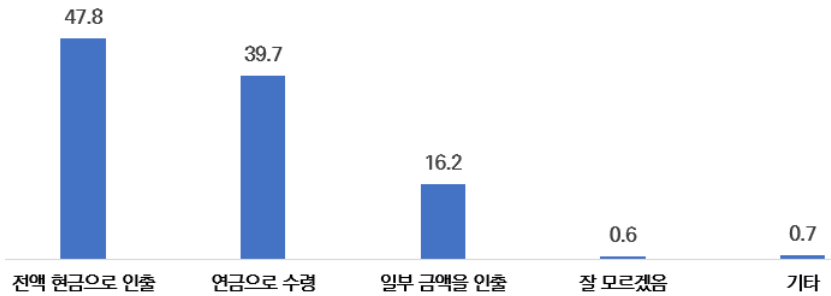
가. 퇴직연금 인출

과거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780명 중, 퇴직연금에서 연금 소득을 받고 있거나 수령한 경험이 있거나,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험이 있는 345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인출 경험에 대해 질의하였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가 47.8%로 가장 많았고,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는 39.7%, 일부 금액을 인출한 경우는 16.2%였다.

〈그림 III-16〉 퇴직연금 수령방법(모두 선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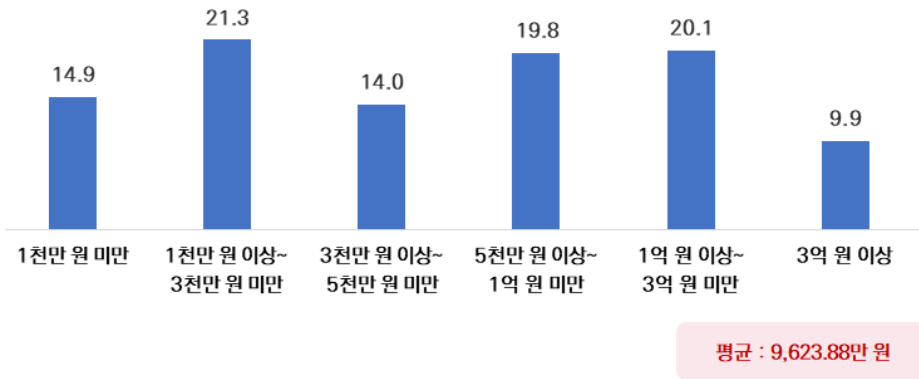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345명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16〉은 연금 수령, 일부 인출, 전액 인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퇴직연금에서 처음으로 돈을 인출했을 때, 퇴직연금의 총 적립 금액의 분포를 보여준다. 퇴직연금 평균 적립 금액은 약 9,624만 원이었으며, 평균 적립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억 원 이상을 적립한 가입자는 응답자의 30%를 차지하였다.

〈그림 Ⅲ-17〉 퇴직연금 총 적립 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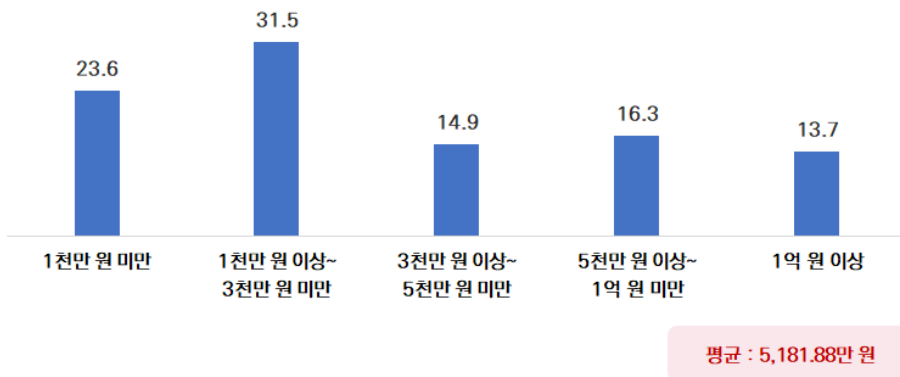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함(345명 중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제외)

〈그림 Ⅲ-17〉은 응답 시점까지 응답자가 퇴직연금에서 수령한 금액의 분포를 보여준다. 평균 수령 금액은 약 5,182만 원이었으며,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수령한 경우가 31.5%로 가장 많았다.

〈그림 Ⅲ-18〉 퇴직연금에서 수령한 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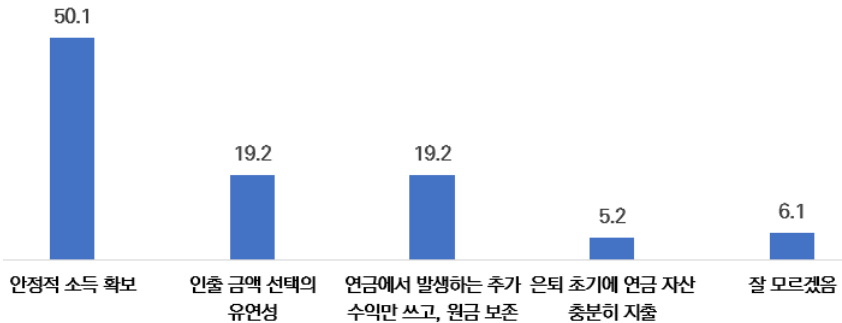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함

퇴직연금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지 묻은 결과, 안정적 소득확보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1%로 가장 높았고, 인출 금액 선택의 유연성과 연금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만 쓰고 원금만 보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9.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은퇴 초기에 연금 자산을 충분히 지출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비율은 5.2%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III-19〉 퇴직연금 선호 수령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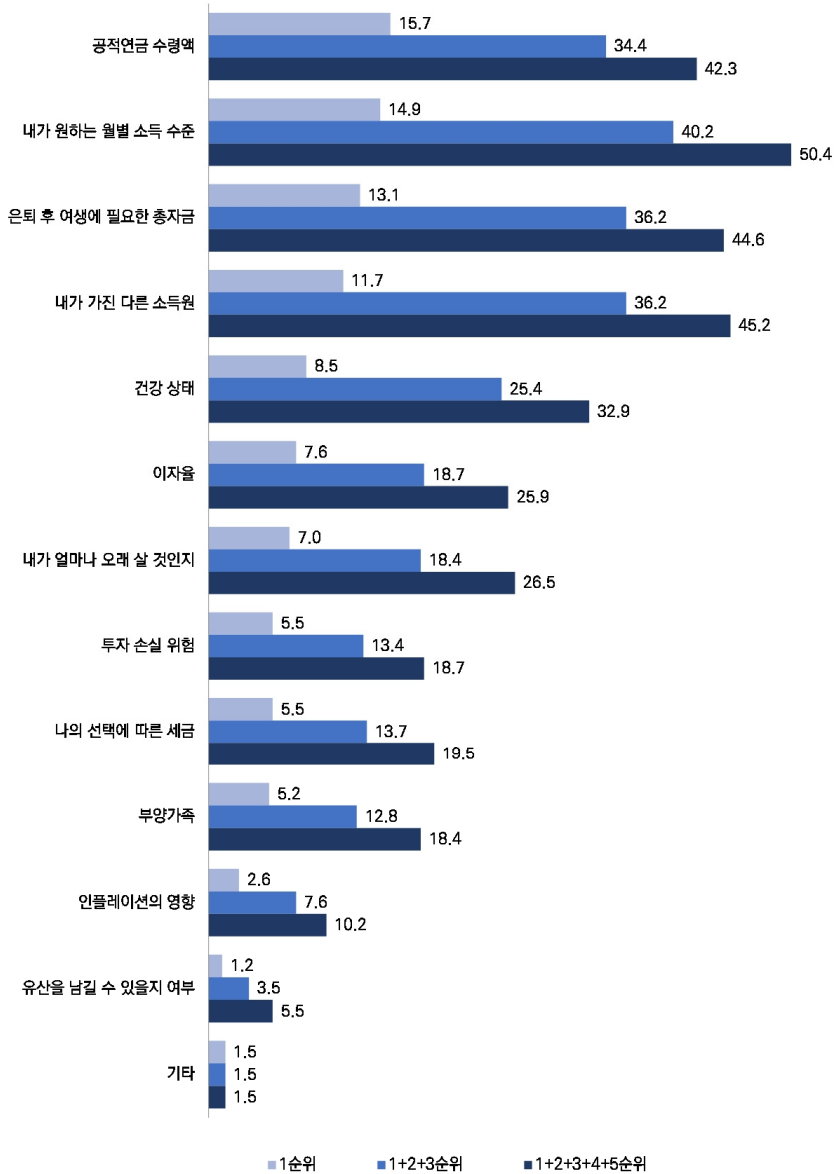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했거나, 일부 금액 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적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함

퇴직연금에서 돈을 어떻게 인출할지 결정할 때, 고려한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는 공적연금 수령액(15.7%), 내가 원하는 월별 소득 수준(14.9%), 은퇴 후 여생에 필요한 총자금(13.1%), 내가 가진 다른 소득원(11.7%)이었다. 5순위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내가 원하는 월별 소득 수준(50.4%), 내가 가진 다른 소득원(45.2%), 은퇴 후 여생에 필요한 총자금(44.6%), 공적연금 수령액(42.3%) 순이었다.

〈그림 III-20〉 퇴직연금 인출 결정 시 고려한 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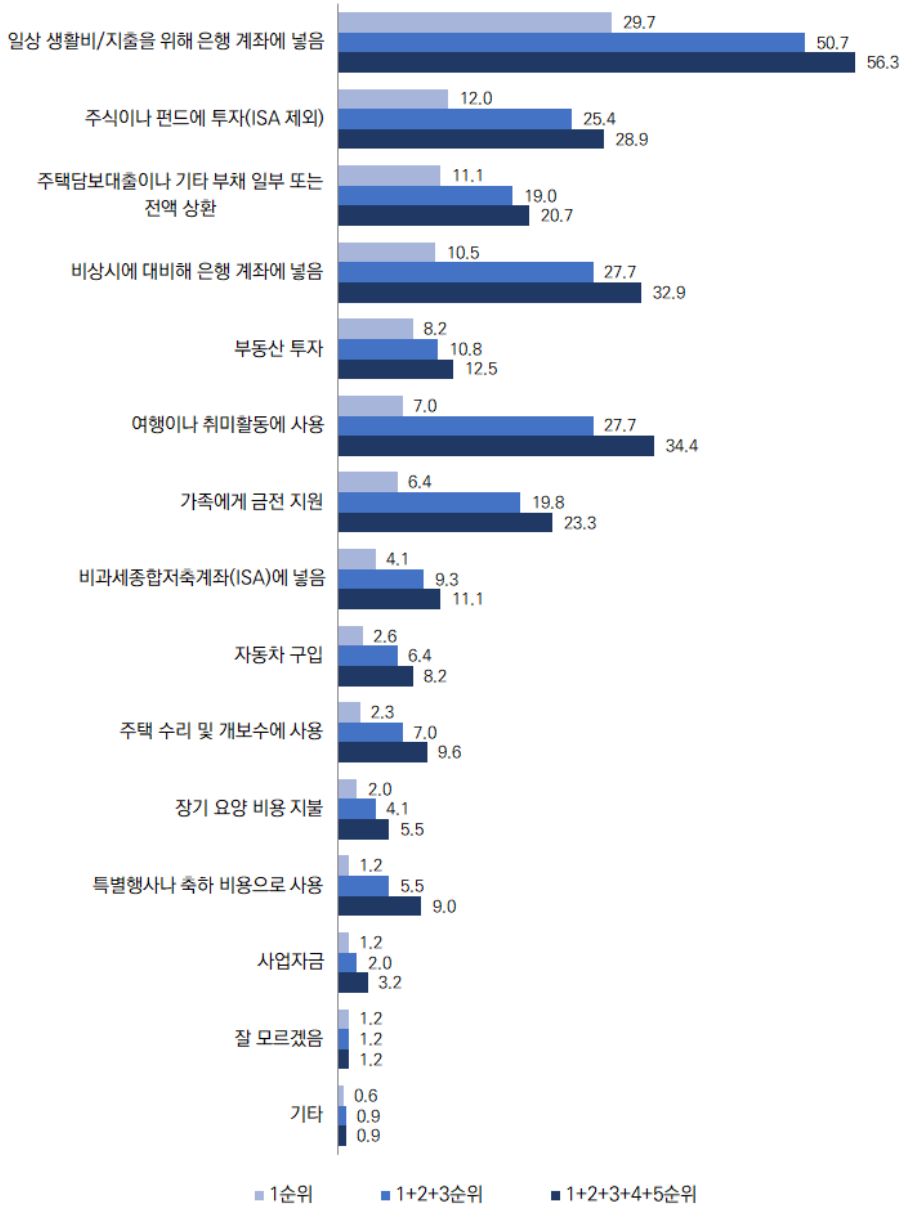


주: 1)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했거나, 일부 금액 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적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함
 2) '퇴직연금에서 돈을 어떻게 인출할지 결정할 때, 다음 항목들 중 어떤 것을 고려하셨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5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퇴직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343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거나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질의하였다. 1순위 기준으로는 일상 생활비나 지출을 위해 은행 계좌에 넣었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ISA 제외)했다는 응답이 12.0%,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부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했다는 답변이 11.1%, 비상시를 대비해 은행 계좌에 넣었다는 답변이 10.5%였다. 5순위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순위가 다소 바뀌었는데, 일상 생활비나 지출을 위해 은행 계좌에 넣었다는 응답이 56.3%,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사용했다는 답변이 34.4%, 비상시에 대비해 은행 계좌에 넣었다는 응답이 32.9%,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는 응답이 28.9%였다.

〈그림 III-21〉 퇴직연금 사용처 또는 사용 계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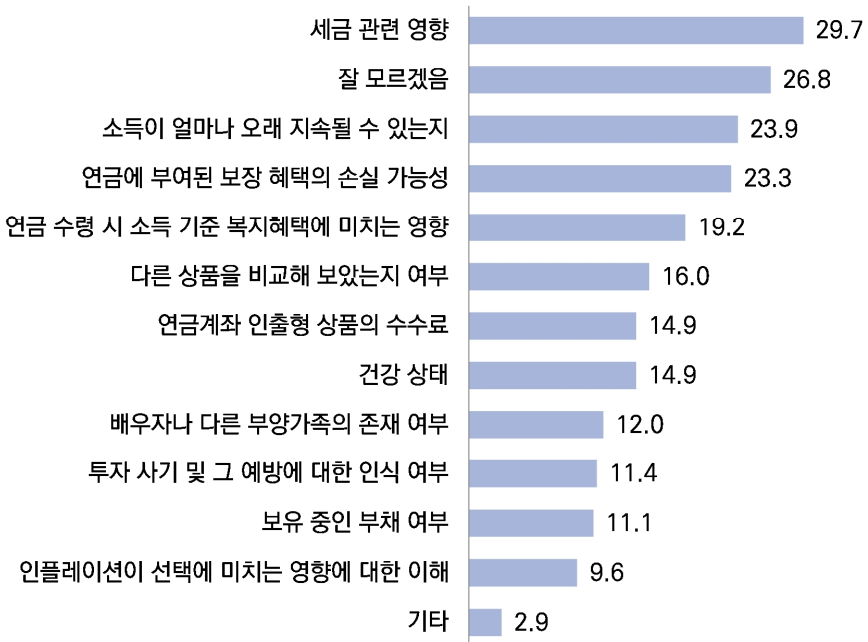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했거나, 일부 금액 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적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함

응답자가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했거나, 일부 인출 또는 전액 인출했을 때, 퇴직연금 사업자가 질문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질의한 결과, 세금 관련 영향, 소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연금에 부여된 혜택의 손실 가능성, 연금 수령 시 소득 기준 복지혜택에 미치는 영향, 다른 상품과의 비교 여부, 연금계좌 인출형 상품의 수수료,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질문을 받았는지,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6.8%였다.

〈그림 III-22〉 퇴직연금 수령/인출 시 퇴직연금 사업자가 질문하거나 제공한 정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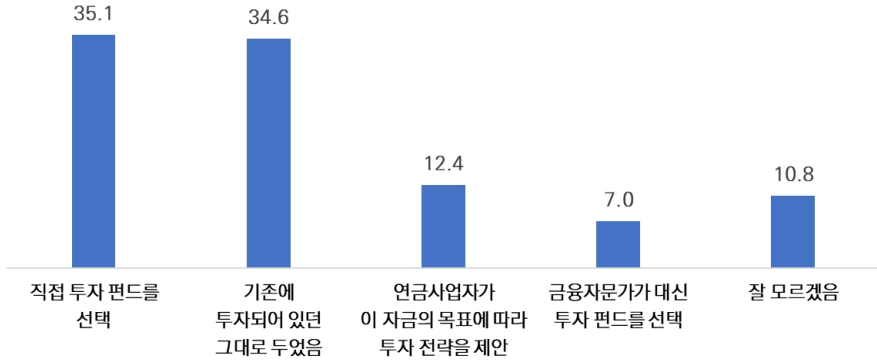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했거나, 일부 금액 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적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함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금액을 인출한 경우, 퇴직연금에 남겨둔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어떻게 선택했는지 조사한 결과, 직접 투자 펀드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35.1%,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그대로 두었다는 응답이 34.6%, 연금사업자가 자금의 목표에 따라 투자전략을 제안했다는 응답이 12.4%였다.

〈그림 III-23〉 남겨둔 퇴직연금 자금의 투자 방식 선택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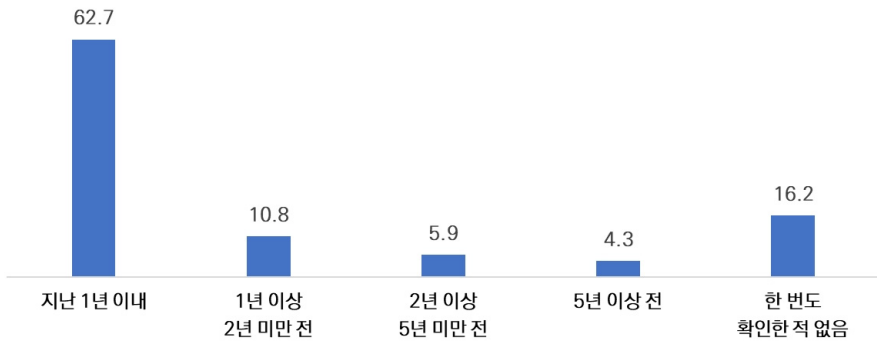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금액을 인출한 응답자 185명을 대상으로 함

퇴직연금에 남아있는 자금이 어디에 운용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을 질의한 결과, 2년 이상 되었다는 응답이 26.4%였고, 이 중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16.2%였다.

〈그림 III-24〉 퇴직연금 운용(투자) 상황 마지막 확인 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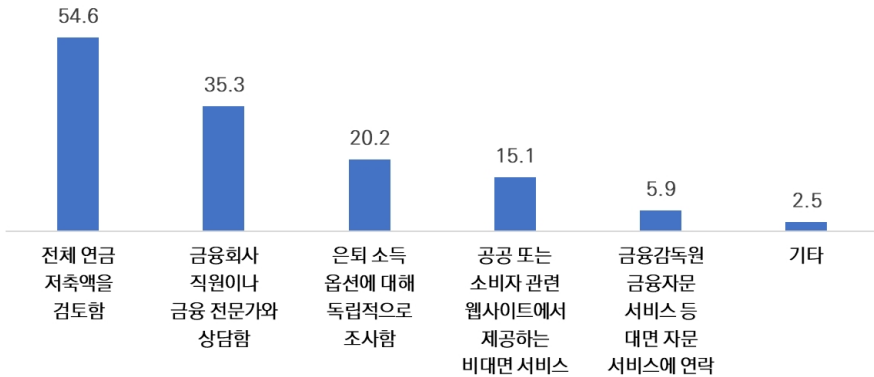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금액을 인출한 응답자 185명을 대상으로 함

퇴직연금 보유자 중 은퇴하였거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239명에게 퇴직연금 수령이 개시되기 전 연금사업자로부터 은퇴 안내 자료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지 질의한 결과, 기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였다. 이들에게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은퇴소득 옵션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물었다. 전체 연금 저축액을 검토했다는 응답이 54.6%,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했다는 응답이 35.3%, 은퇴 소득 옵션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했다는 응답이 20.2%였다.

〈그림 III-25〉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은퇴 소득 옵션에 대한 정보를 받은 이후 행동

(단위: %)



주: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은퇴 안내 자료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11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복수 선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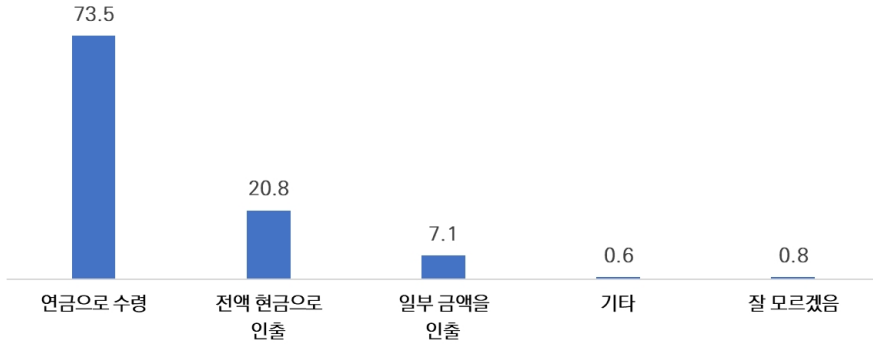
나. 개인연금 인출

과거에 개인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1,223명 중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630명을 대상으로 개인연금 인출 경험에 대해 질의하였다.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는 73.5%,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가 20.8%로 가장 많았고, 일부 금액을 인출한 경우는 7.1%였다.

〈그림 Ⅲ-26〉 개인연금 수령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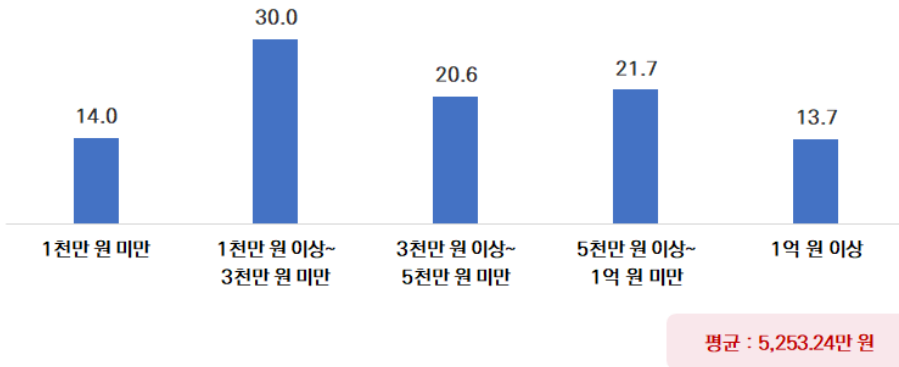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630명을 대상으로 함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 일부 인출, 전액 인출 등으로 처음 돈을 수령했을 당시, 개인연금의 총 적립 금액의 평균은 약 5,253만 원이었는데, 〈그림 Ⅲ-27〉은 총 적립 금액의 분포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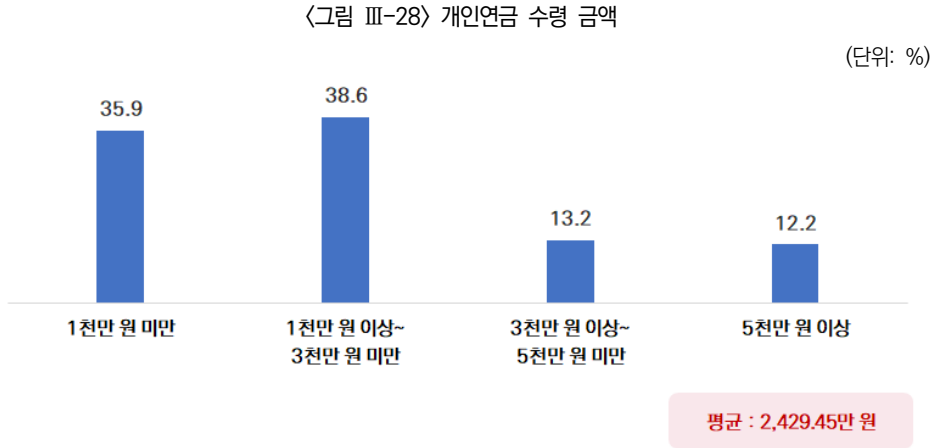
〈그림 Ⅲ-27〉 개인연금 총 적립 금액

(단위: %)



주: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621명을 대상으로 함(개인연금 수령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제외)

응답 시점까지 개인연금 적립금 중 수령한 금액의 평균은 약 2,429만 원이었고, 수령 금액의 분포는 <그림 III-28>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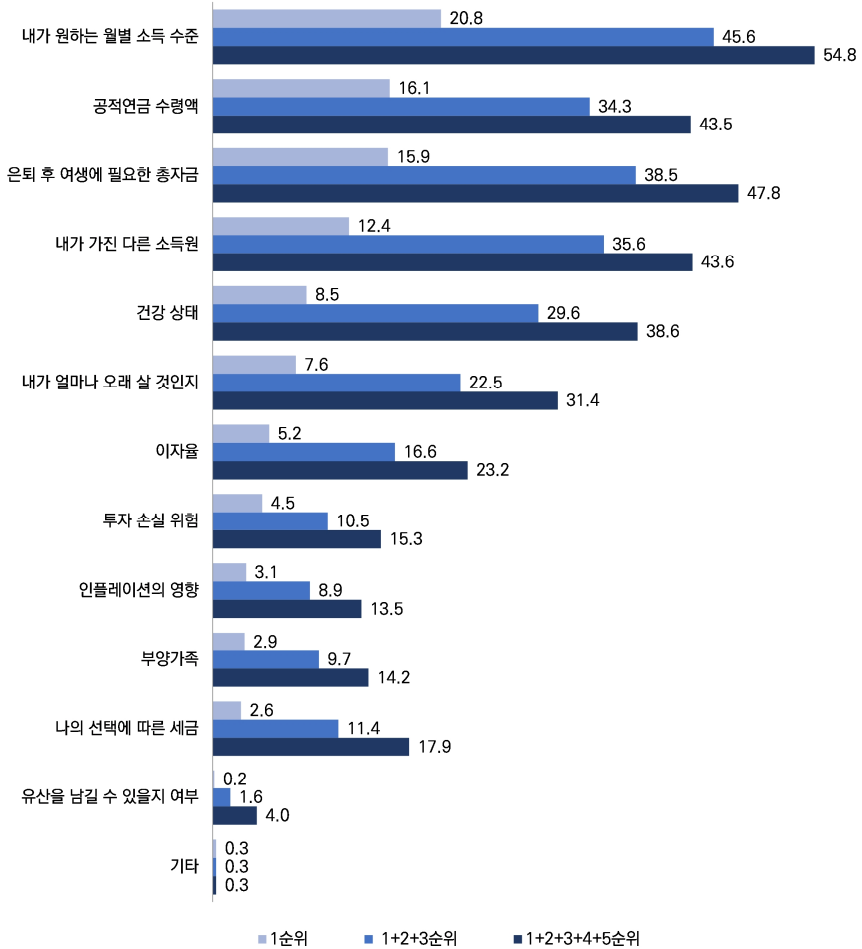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621명을 대상으로 함

1순위 기준으로는 내가 원하는 월별 소득 수준, 공적연금 수령액, 은퇴 후 여생에 필요한 총자금, 내가 가진 다른 소득원 등의 순서였고, 5순위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월별 소득 수준, 은퇴 후 여생에 필요한 총자금, 내가 가진 다른 소득원, 공적연금 수령액의 순이었다.

〈그림 III-29〉 개인연금 인출 결정 시 고려한 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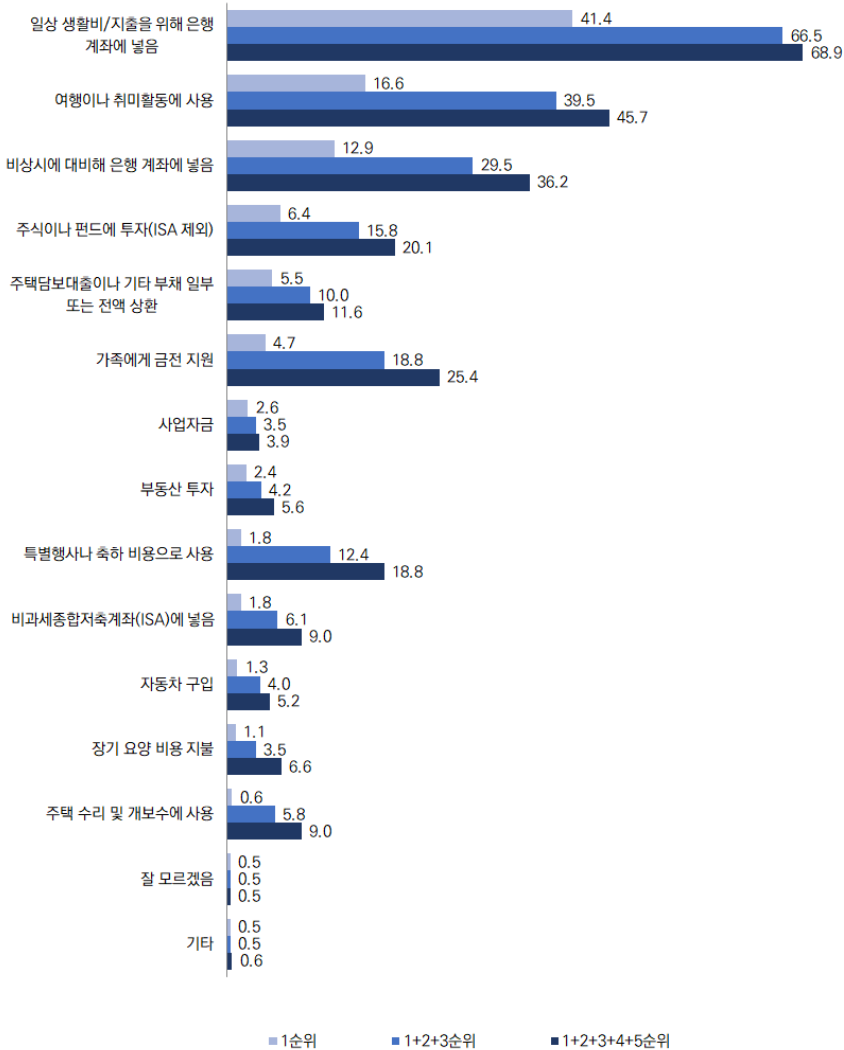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621명을 대상으로 함(개인연금 수령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제외)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621명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거나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질의하였다. 1순위 기준으로는 일상 생활비나 지출을 위해 은행 계좌에 넣는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사용한다는 경우가 16.6%, 비상시에 대비해 은행 계좌에 넣는다는 응답이 12.9%였다. 5순위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에도 1순위와 거의 비슷했는데, 일상 생활비나 지출을 위해 은행 계좌에 넣는다는 응

답이 68.9%,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45.7%, 비상시에 대비해 은행 계좌에 넣는다는 답변이 36.2%였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는 응답도 20.1%였다.

〈그림 III-30〉 개인연금 사용처 또는 사용 계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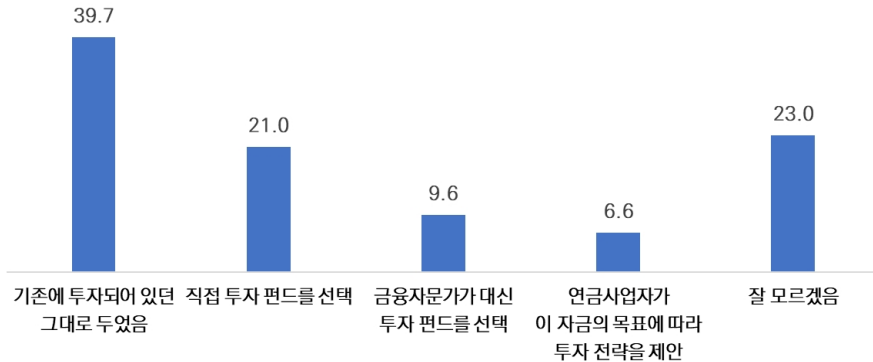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621명을 대상으로 함

개인연금에 남겨둔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에 투자되어 있던 그대로 두었다는 응답이 39.7%였고, 직접 투자 펀드를 선택했다는 응답은 21.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3.0%나 되었다.

〈그림 Ⅲ-31〉 남겨둔 개인연금 자금의 투자 방식 선택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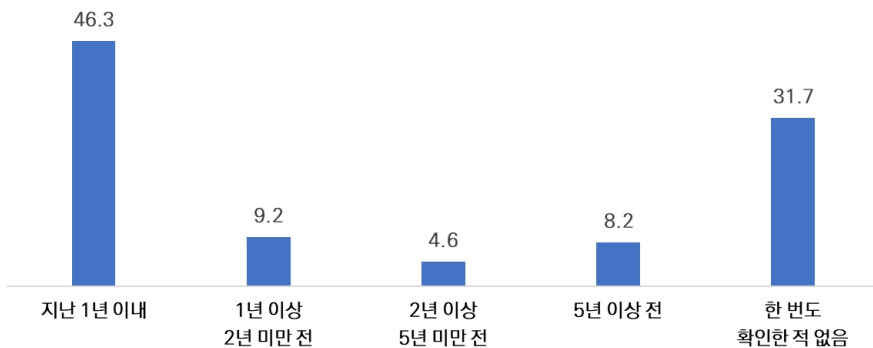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금액을 인출한 응답자 499명을 대상으로 함

개인연금에 남아있는 자금이 어디에 운용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을 질의한 결과, 2년 이상 되었다는 응답이 44.5%였고, 이 중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1.7%였다.

〈그림 Ⅲ-32〉 개인연금 운용(투자) 상황 마지막 확인 시점

(단위: %)



주: 개인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금액을 인출한 응답자 499명을 대상으로 함

6. 금융후생

가. 금융후생

응답 당시 자산, 부채, 저축 등 재무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질의한 결과,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는 44.8점으로 만족하지 않는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높아졌고, 은퇴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재무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재무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Ⅲ-12〉 본인의 재무 상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6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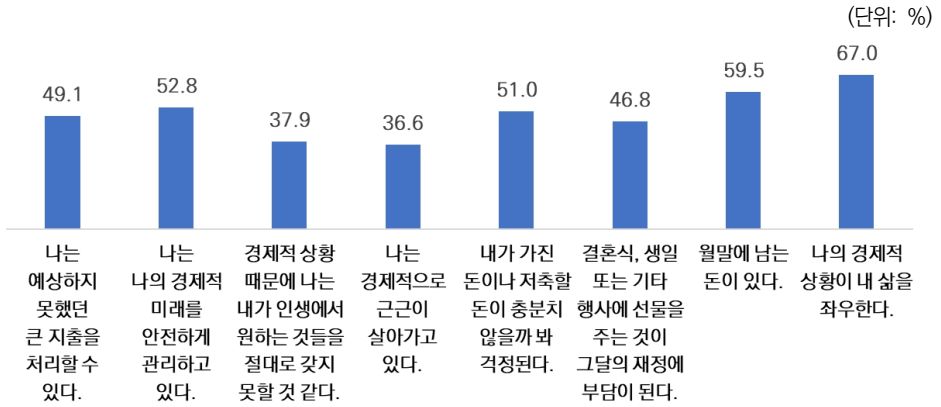
| 구분 | | 응답자 수 | ①~③ | ④~⑥ | 6점 평균 | 100점 환산 평균 |
|----------|-----------|-------|------|------|-------|---------------|
| 전체 | | 3,000 | 53.0 | 47.0 | 3.24 | 44.83 |
| 성별 | 남성 | 1,470 | 52.4 | 47.6 | 3.27 | 45.32 |
| | 여성 | 1,530 | 53.7 | 46.3 | 3.22 | 44.37 |
| 연령 | 55~59세 | 832 | 57.1 | 42.9 | 3.10 | 41.97 |
| | 60~64세 | 799 | 52.3 | 47.7 | 3.24 | 44.71 |
| | 65~69세 | 719 | 51.3 | 48.7 | 3.33 | 46.62 |
| | 70~79세 | 650 | 50.6 | 49.4 | 3.33 | 46.68 |
| 은퇴 여부 | 은퇴함 | 993 | 47.2 | 52.8 | 3.41 | 48.26 |
| | 퇴직 후, 재취업 | 633 | 52.4 | 47.6 | 3.27 | 45.50 |
| | 은퇴하지 않음 | 876 | 55.4 | 44.6 | 3.17 | 43.36 |
| | 해당하지 않음 | 498 | 61.2 | 38.8 | 2.99 | 39.76 |
| 최종 학력 | 중학교 이하 | 90 | 65.6 | 34.4 | 2.82 | 36.44 |
| | 고등학교 | 868 | 60.9 | 39.1 | 2.99 | 39.77 |
| | 대학교 | 1,646 | 52.1 | 47.9 | 3.29 | 45.86 |
| | 대학원 | 396 | 36.9 | 63.1 | 3.68 | 53.59 |

〈표 Ⅲ-12〉 계속

| | | 응답자 수 | ①~③ | ④~⑥ | 6점 평균 | 100점 환산 평균 |
|-------------------------|------------------|-------|------|------|-------|---------------|
| 월평균 개인 소득 (세후) | 100만 원 미만 | 413 | 72.4 | 27.6 | 2.66 | 33.17 |
| | 100~200만 원 미만 | 591 | 66.0 | 34.0 | 2.84 | 36.82 |
| | 200~300만 원 미만 | 614 | 55.7 | 44.3 | 3.15 | 43.03 |
| | 300~400만 원 미만 | 491 | 51.1 | 48.9 | 3.34 | 46.80 |
| | 400~500만 원 미만 | 327 | 36.7 | 63.3 | 3.72 | 54.37 |
| | 500~600만 원 미만 | 198 | 38.4 | 61.6 | 3.73 | 54.55 |
| | 600~700만 원 미만 | 113 | 36.3 | 63.7 | 3.73 | 54.51 |
| | 700~800만 원 미만 | 100 | 33.0 | 67.0 | 3.80 | 56.00 |
| | 800만 원 이상 | 153 | 25.5 | 74.5 | 4.04 | 60.78 |
| 총 자산 | 1억 원 미만 | 606 | 70.1 | 29.9 | 2.65 | 33.00 |
| | 1억 원~3억 원 미만 | 680 | 67.1 | 32.9 | 2.83 | 36.59 |
| | 3억 원~5억 원 미만 | 402 | 55.2 | 44.8 | 3.17 | 43.43 |
| | 5억 원~10억 원 미만 | 620 | 48.1 | 51.9 | 3.45 | 49.10 |
| | 10억 원 이상 | 692 | 27.5 | 72.5 | 4.01 | 60.29 |

다음으로 재무 상태를 서술하는 여덟 개 문장을 제시하고 해당 문장이 응답자의 상황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림 Ⅲ-33〉은 6점 척도 응답 중 ④~⑥으로(긍정 대담) 응답한 비율을 표시한다.

〈그림 III-33〉 재무 상태 설명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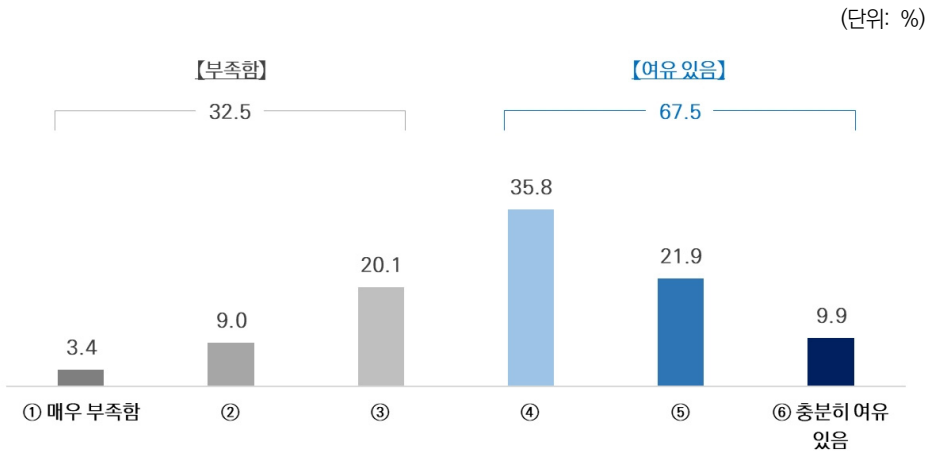


주: 모든 응답자(3,000명)를 대상으로 함

나. 생활비: 은퇴자

응답자가 은퇴했거나, 전업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를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고, 여유 있다(④~⑥으로 응답)고 응답한 비율이 67.5%였다.

〈그림 III-34〉 최근 1년간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주: 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1,106명)를 대상으로 함

〈표 Ⅲ-13〉 소득 및 자산 수준별 생활비 충당 정도

(단위: %)

| 구분 | | 부족함 ①~③ | 여유 있음 ④~⑥ | χ^2 검정치 |
|-----------|---------------------|------------|--------------|--------------|
| 개인 월소득 | 300만 원 미만 | 42.6 | 57.5 | 77.60*** |
| | 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 19.1 | 80.9 | |
| | 600만 원 이상 | 10.5 | 89.5 | |
| 자산 | 1억 원 미만 | 58.9 | 41.1 | 124.89*** |
| | 1억 원~3억 원 미만 | 43.8 | 56.3 | |
| | 3억 원~5억 원 미만 | 28.0 | 72.0 | |
| | 5억 원~10억 원 미만 | 24.4 | 75.6 | |
| | 10억 원 이상 | 15.0 | 85.1 | |

주: 1) 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1,106명)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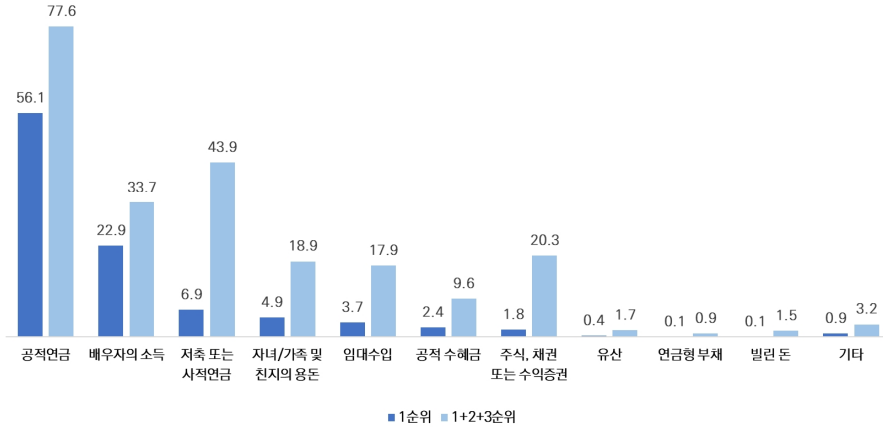
2)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Ⅲ-13〉은 소득별, 자산별로 생활비 충당 정도를 보여주는데, 예상할 수 있듯이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산이 낮은 집단일수록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응답자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1순위 기준으로는 공적연금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소득, 저축 또는 사적연금 순이었고, 3순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공적연금, 저축 또는 사적연금, 배우자의 소득 순이었다.

〈그림 III-35〉 가구의 주된 소득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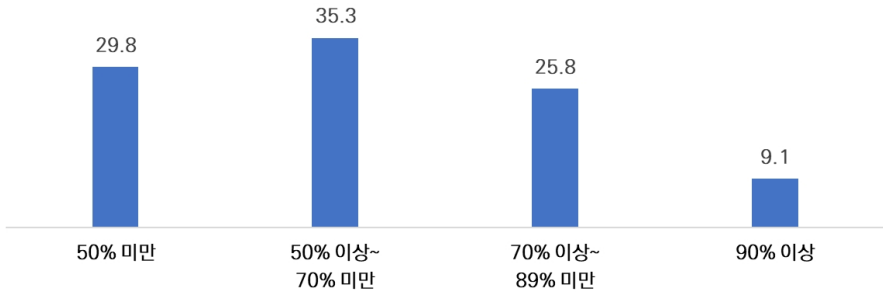


주: 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 1,106명을 대상으로 함

평균적으로 현재 가구 월소득은 은퇴 직전 1년간 평균 월소득의 56.0%였고, 〈그림 III-36〉는 은퇴 후 상대적 월소득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III-36〉 현재 가구 월소득과 은퇴 전 가구 월소득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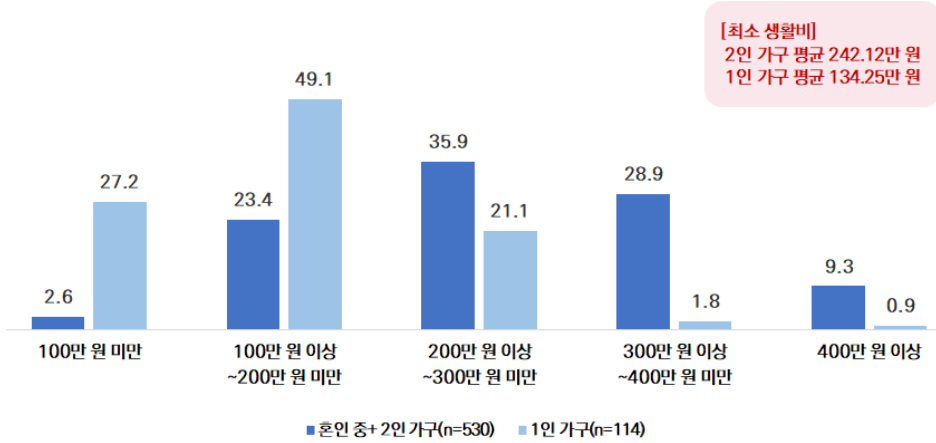


주: 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 1,106명을 대상으로 함

현재 월 최소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2인 부부 기준으로 약 242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약 134만 원으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약 341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약 199만 원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I-37〉 현재 가구 월 최소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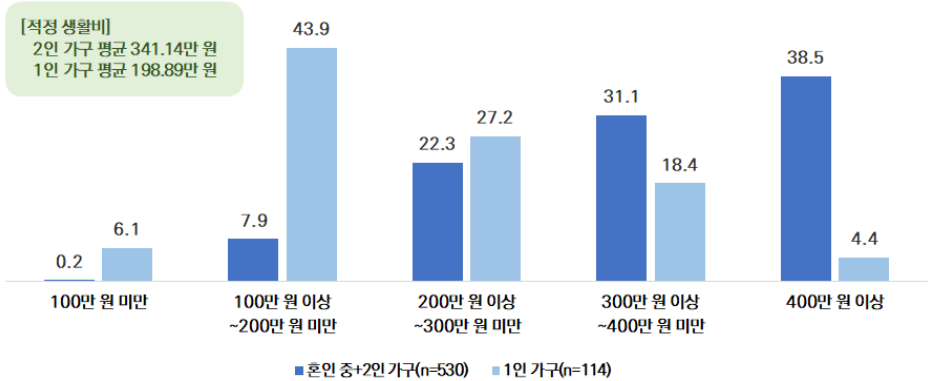
(단위: %)



주: 은퇴자이거나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 1,106명 중 혼인 상태이며 2인 가구인 경우와 1인 가구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그림 III-38〉 현재 가구 월 적정 생활비

(단위: %)



주: 은퇴자이거나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 1,106명 중 혼인 상태이며 2인 가구인 경우와 1인 가구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다. 생활비: 비은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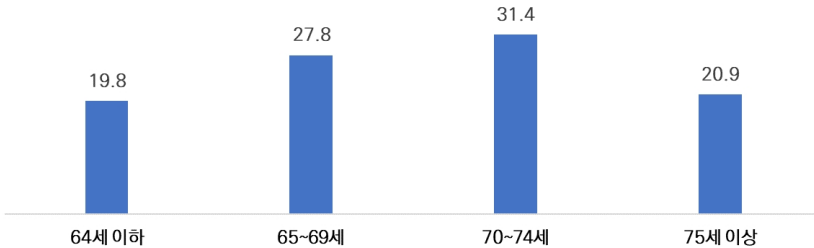
현재 주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와 전업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주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은퇴 예상 연령, 예상 노후 생활비, 노후 준비 상황을 질의하였다.

먼저 평균적으로 은퇴 예상 연령은 약 68.6세로 응답하였고, 은퇴 예상 연령의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I-39〉 은퇴 예상 연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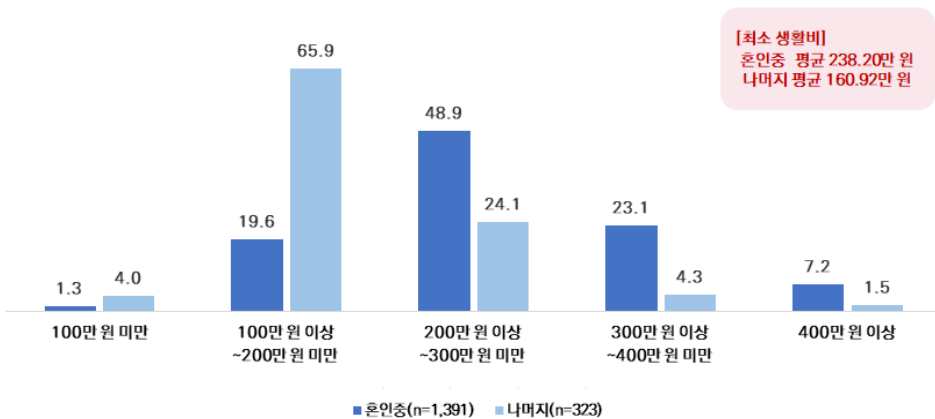


주: 비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비은퇴자인 응답자 1,714명을 대상으로 함

예상 노후 최소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부부 기준으로 약 238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약 161만 원으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약 336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약 232만 원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III-40〉 예상 노후 최소 생활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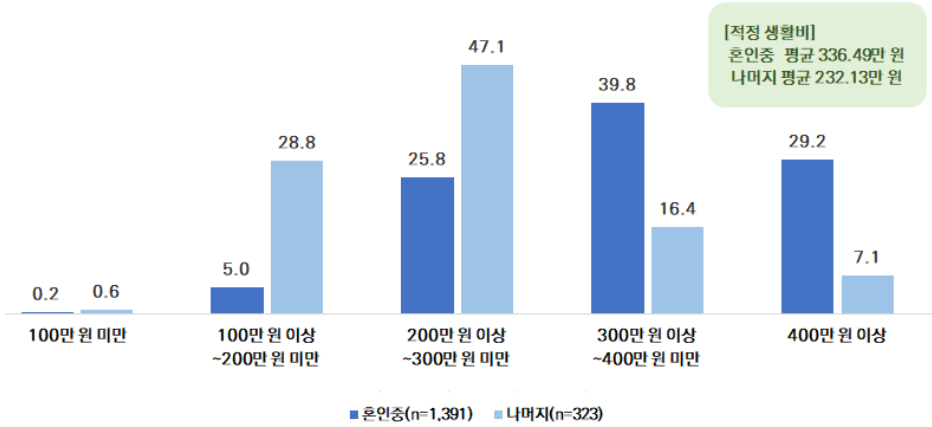


주: 1) 비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비은퇴자인 응답자 1,714명을 대상으로 함

2) 배우자와 함께 산다면 부부 기준으로, 나머지(미혼, 별거, 이혼, 사별)는 개인 기준으로 답변을 요청함

〈그림 III-41〉 예상 노후 적정 생활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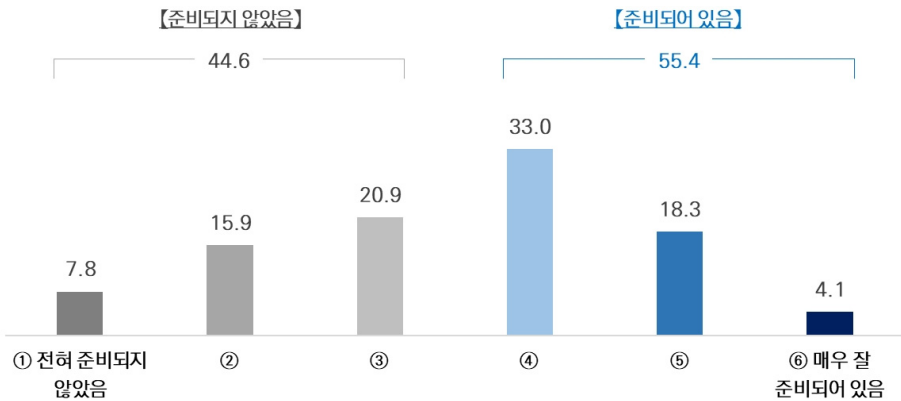


주: 1) 비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비은퇴자인 응답자 1,714명을 대상으로 함
2) 배우자와 함께 산다면 부부 기준으로, 나머지(미혼, 별거, 이혼, 사별)는 개인 기준으로 답변을 요청함

노후 준비 상황을 6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④~⑥)한 비율은 55.4%였고, 6점 척도 평균 점수는 3.51점이었는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해 보면 50.2점이었다.

〈그림 III-42〉 노후 준비 상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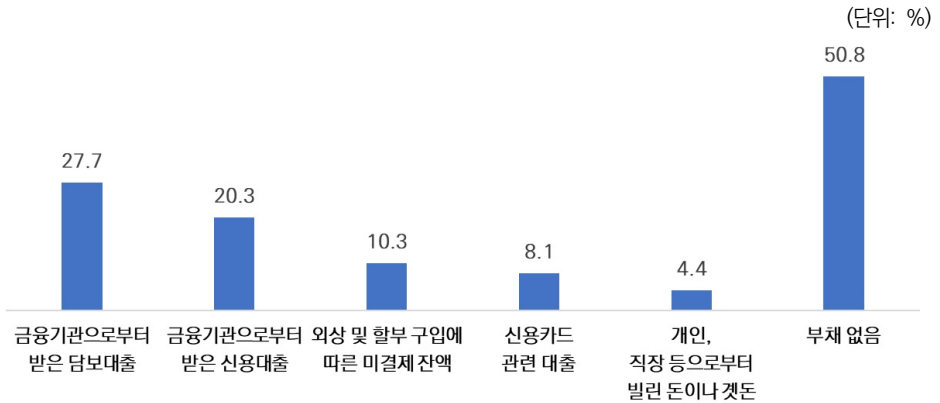
주: 비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비은퇴자인 응답자 1,714명을 대상으로 함

라. 부채

부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50.8%는 부채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9.2%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 부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외상 및 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갯돈을 탄 후 낼 돈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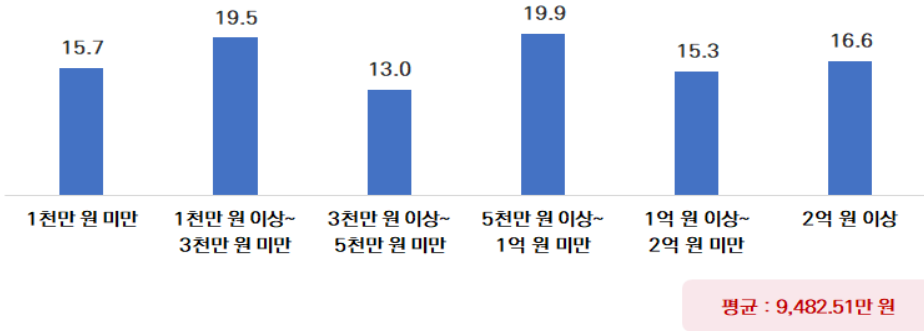
〈그림 Ⅲ-43〉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 종류(중복응답)



부채가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총부채는 약 9,483만 원이었고, 〈그림 Ⅲ-43〉은 총부채 금액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III-44〉 총부채 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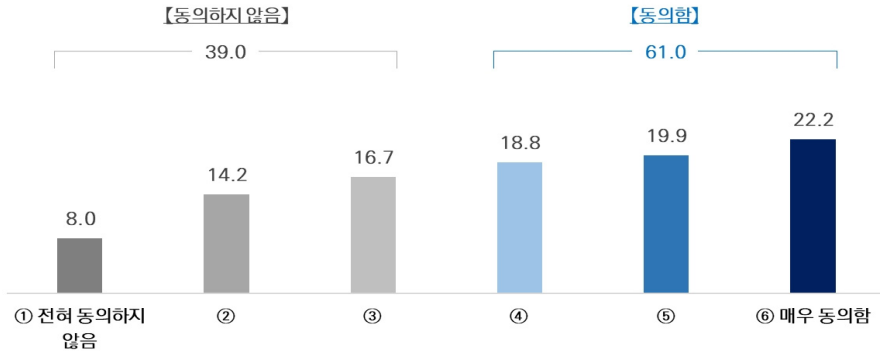


주: 부채가 있는 응답자 1,475명을 대상으로 함

현재 빚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6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④~⑥), 동의 정도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6점 기준 3.95점) 65.8점이었다.

〈그림 III-45〉 ‘나는 지금 부채(빚)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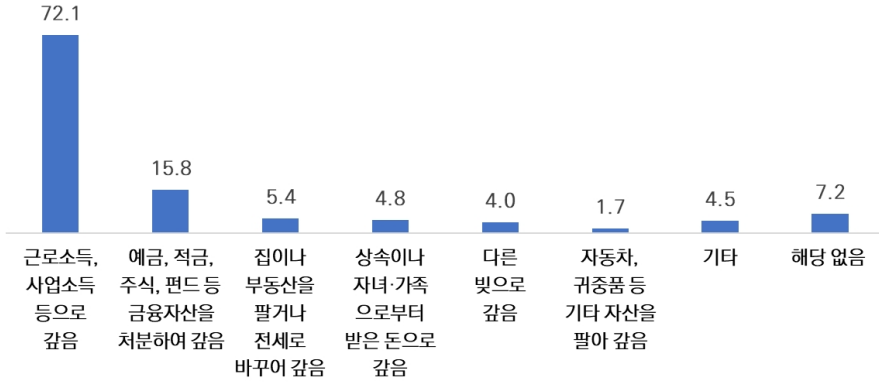
주: 1) 부채가 있는 응답자 1,475명을 대상으로 함

2) “나는 지금 부채(빚)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라는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6점 척도로 응답함

어떤 자금으로 부채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갚고 있다는 응답이 72.1%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을 처분하여 갚는다는 응답이 15.8%, 부동산을 처분하여 갚는다는 응답이 5.4%, 상속이나 자녀,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갚는다는 응답이 4.8%, 다른 빚으로 갚는다는 응답이 4.0%였다.

〈그림 III-46〉 부채(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자금의 출처(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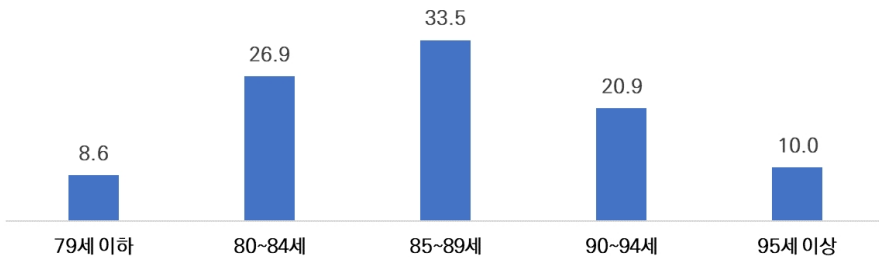
주: 부채가 있는 응답자 1,475명을 대상으로 함

7. 기대 여명 및 노인 돌봄 필요 예상 연령

자신이 몇 살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는데, 2023년 기준 성별 기대수명을 참고로 제공하였다.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자신이 85.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예상 생존 연령 분포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그림 III-47〉 예상 생존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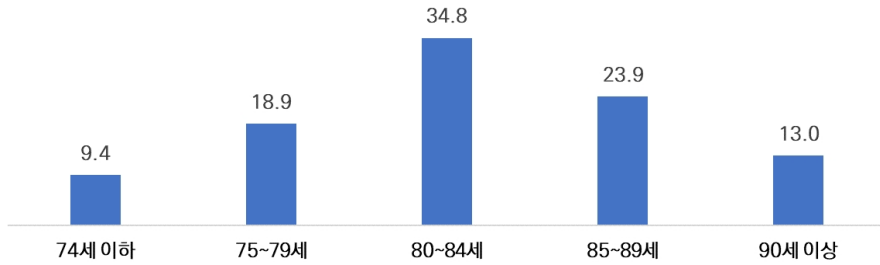
(단위: %)



다음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질 시기는 언제쯤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의한 결과,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81.2세가 되면 자신이 노인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돌봄 필요 예상 연령의 분포는 〈그림 III-48〉과 같았다.

〈그림 III-48〉 노인 돌봄 필요 예상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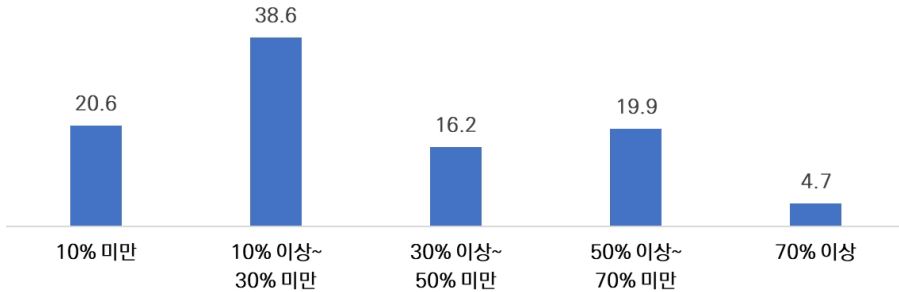
(단위: %)



한편, 응답자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24.9%라고 응답하였고, 38.6%의 응답자가 10% 이상 30% 미만의 확률로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림 III-49〉 치매에 걸릴 가능성

(단위: %)



8. 소결

첫째, 금융이해력, 퇴직연금 이해력,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70세 이상,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낮은 집단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금융이해력 질문 중 물가상승률, 담보대출, 위험분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었고, 이자율, 채권가격과 이자율 간의 관계, 대출 관련 복리 개념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여섯 문항 중 정답 수의 합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점수가 60

점 이하인 집단을 살펴보면, 여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은퇴자 제외, 미취업자, 전업주부 등),¹⁹⁾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월 개인소득(세후)이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 총 자산이 1억 원 미만인 응답자 집단이 이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관련 이해도 문항 중에서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직접 선택한다는 것과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과세에 대한 이해도는 수령방법이나 퇴직소득 과세 이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65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최종학력을 가진 집단, 월평균 개인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 경우 100점 환산 점수가 70점 미만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와 관련해서는 노인간병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노인장기요양등급 결정 절차,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는 요양병원 입원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문항은 다른 항목에 비해 정답률이 낮았다. 일곱 문항의 정답 수를 합한 점수를 기준으로 이해력이 낮은 집단을 살펴보면, 70~79세의 경우 100점 환산 시 65.6점,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60.3점, 총자산이 1억 원 미만이 경우가 65.1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70세 이상, 중학교 이하의 학력, 저소득·저자산 계층은 전반적 금융이해력이 낮고, 퇴직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이해도 또한 낮아, 금융이해력과 함께 제도 이해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평소 돈 관리, 향후 노인 돌봄에 대한 대비 등을 조사하였는데, 노인 돌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 보았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이 없다.’는 응답이 33.3%,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13.7%를 차지하였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5% 이상인 집단은 남성(16.9%), 55~59세(15.5%), 현직에 있는 경우(15.5%),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15.4%), 월평균소득이 400~500만 원 미만인 경우(18.3%), 총자산이 1억 원~3억 원 미만(16.5%) 집단이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가족 등 제3자가 응답자를 대신해 은행 계좌나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였다.

19) 은퇴 상태인지 질의하고, ① 은퇴함, ②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 ③ 주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음, ④ 해당하지 않음(미취업자, 전업주부 등)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함

한편 장례비용, 부채상환, 상속 및 증여 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장례비용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4.7%,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4.7%로 응답자의 반 정도는 해당 항목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⁰⁾

노인 돌봄 계획이나 장례비용, 부채상환, 상속 및 증여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 비율의 응답자가 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계획 수립을 돕는 가이드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로 재무적 의사결정 능력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조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아 관련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비 방법을 돕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과거에 신탁을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16%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신탁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 중 62.7%가 신탁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60~64세,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중학교 이하 또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월평균소득이 500~600만 원 미만이거나 8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이 1억 원~5억 원 미만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 이상이었다. 아울러 신탁제도를 이용한다면 본인의 인지능력 저하 대비 재산관리 목적(55.7%)과 유언장 대응 및 상속분쟁 예방 목적(23.2%)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신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가 향후 인지능력 저하 대비 재산관리나 상속분쟁 예방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은 경우, 총자산이 낮은 경우,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한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다. 자문을 구하는 대상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배우자(43.9%),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융 전문가(19.1%)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은퇴기 재무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질의한 결과, 76.2%가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서비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 중에서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2.9%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이용해

20) 각 항목의 계획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경우 중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봤다는 응답률은 낮았으나, 이용 후 서비스 만족했다는 응답 비율은 모두 70% 이상이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정보 제공이나 자문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고소득, 고자산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유료 서비스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저소득이나 중·저자산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자문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만큼 신뢰할 수 있고 무료인 공적 재무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다섯째, 퇴직연금을 인출한 적이 있는 응답자 중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퇴직연금 인출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공적연금 수령액, 원하는 월별 소득 수준, 은퇴 후 여생에 필요한 총자금 순이었다. 인출한 퇴직연금의 1순위 사용처로는 일상 생활비 및 지출을 위해 은행 계좌에 입금,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 부채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유사한 질문들을 하였는데, 개인연금 인출 시 연금으로 수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퇴직연금 인출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원하는 월별 소득 수준, 공적연금 수령액, 은퇴 후 여생에 필요한 총자금 순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하였다. 인출한 개인연금의 사용처 순위는 일상 생활비 및 지출을 위해 은행 계좌에 입금,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사용, 비상시를 대비해 은행 계좌에 입금 순이었다.

여섯째, 응답자들은 자산, 부채, 저축 등 재무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6점 척도로 응답했는데,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는 44.8점이었다. 재무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환산 시 40점보다 낮은 집단은 미취업자나 전업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집단, 총자산이 3억 원 미만인 집단이었다.

한편 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은퇴한 가구에 속하는 응답자에게 생활비 충당 정도를 6점 척도로 질의한 결과, 32.5%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평균적으로 현재 가구 월소득은 은퇴 직전 1년간 평균 월소득의 56.0%라고 응답하였다.

은퇴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는 부부 기준, 즉, 혼인 중이면서 2인 가구인 경우 최소 생활비가 약 242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341만 원으로, 1인 가구인 경우 최소 생활비는 약 134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199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비은퇴가구가 예상한 노후 월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약 238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336만 원, 1인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약 161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232만 원이었다. 부부 기준 생활

비는 최소, 적정 생활비 모두 비은퇴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실제 은퇴가구의 생활비가 더 많았으나, 1인 기준 생활비는 비은퇴자의 예상금액보다 실제 은퇴 1인가구의 생활비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2%였고, 평균 총부채 금액은 약 9,483만 원이었다. 부채가 있는 응답자의 61%가 현재 부채가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72.1%), 금융자산 처분(15.8%)을 통해 부채를 갚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소비자가 추가적인 생활비 마련이나 비용 관리, 부채관리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자신이 85.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노인 돌봄이 필요로 할 시기는 81.2세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자신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은 평균 24.9%로 응답하였다.

〈그림 III-50〉 설문조사 주요 결과

